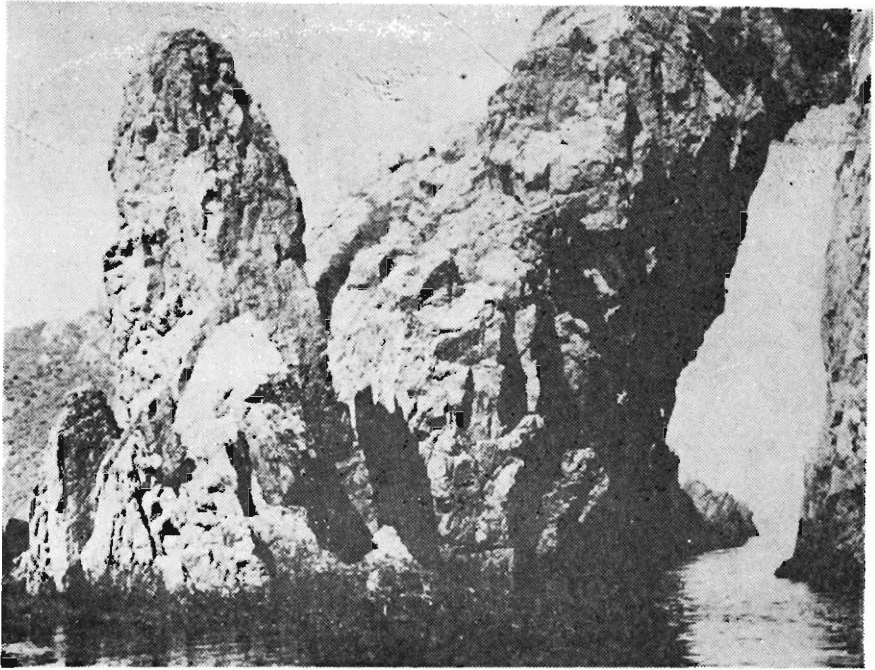


# 速記界

第 15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3	〈卷頭言〉協會의 進路	理事長 崔錫模
6	○視察記：外國速記界를 돌아보고	金鎮基
13	研   速記의 機械化	姜駿遠
19	究   言語速度에 對한 考察	金永春
25	■座談會：第16回 速記講習을 마치고 《體育》	講師 陣
32	第5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記	宣傳部
34	優勝者의 辯	盧熙南
36	*社會活動記：農村奉仕의 보람	金銀珠
39	第8回 定期總會	總務部
43	會務報告 및 文書保存內規	〃
49	◇用語 解說	研究委員會
50	◎消息을 알립니다	編輯部
	5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18   第7, 8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合格者名單	
	24   原稿募集	
	31   速記料金案內	
	51   編輯後記	
題字：海汀 朴 泰 俊      誌：柳 承 寬		

## 總力安保를 爲한 우리의 決意

1975. 5. 18.

最近의 印度支那事態와 北傀의 南侵挑發劃策으로 事實上的 戰爭狀態인 現局面에 處하여 우리의 決意를 다음과 같이 闡明한다.

1. 國家와 民族을 危難으로부터 守護할 길을 提示하신 朴大統領閣下의 4·29特別談話를 全幅 支持 實踐한다.
2. 國家安保를 沮害하는 一切의 國論分裂行爲를 단호히 排擊하고 國民總和團結을 爲하여 모든 努力을 傾注한다.
3. 記錄報國의 使命을 完遂하기 爲하여 우리 速記人은 말은바 職務에 더욱 忠實한다.

<註：本決議文은 全國速記人安保發起大會에서 採擇되었음>

## 協會의 進路

理事長 崔 錫 模



그리도 슬렁거리던 內外情勢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해가 뜨고 지는 自然의 循環만큼은 정확히 하나하나 年輪을 쌓아 갑니다.

乙卯年이 주는 表徵처럼 우리 모두의 日常들이 보다 安樂하고 平安한 時節이 되기를 祈願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時機가 온지도 모르는 이때에 지난 74年 12月 21日 第8回 定期總會에서 理事長이라는 重責을 맡게 되어 실로 그 責任이 무겁고 혹 會員여러분의 期待에 어긋나지나 않을까 하는 不安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前任 理事陣의 훌륭한 執行活動들을 볼때 會員여러분의 聲援과 前任 執行陣의 後援이 있을 것이라는 確信이 마음 든든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本協會의 業績을 이어받고 더불어 새로운 着眼을 摸索하여 보다 알찬 事業들을 꾸렸으면 하는 所望입니다.

이런 뜻에서 아직은 미비한 計劃들이고 또 修正될지도 모르는 段階입니다마는 몇 가지 事業計劃에 대한 所信을 披瀝할까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推維해 오고 있는 事業

입니다마는 放學을 이용한 速記講習입니다.

年2回 겨울放學과 여름放學을 利用하여 男女大學生 및 一般人을 對象으로 速記에 대한 認識을 높이고 그 普及을 目的으로 3週間の 期間동안 速記講習을 實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英語速記와 國語速記를 內容으로 하는 短期講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事業計劃으로서서는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입니다.

全國에 散在되어 있는 速記學術 研修者 및 速記士를 對象으로 英語와 國語를 各級別로 年2回 봄과 가을에 實施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速記競技大會입니다. 한동안 停止狀態에 있었던 速記競技大會를 推進할 計劃입니다.

速記學術 研修者를 對象으로 正級과 準級の 階級으로 나누어 年1回 速記競技大會를 實施함으로써 速記士의 速記術 向上鼓吹를 振作시키는데 所期의 目的을 기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事業으로서서는 速記學術 研究입니다.

이는 短期講習用 速記法式 研究의 繼續으로 效果的인 速記術의 活用 및 다양한 既存 速記法의 研究改良으로 보다 迅速하고 精確한 高速을 꾀하며 研究中에 나타난 問題點을 補完하면서 보다 改良된 速

記法式을 向하여 繼續 研究할 것입니다.

그리고 本協會 事業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會誌發刊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會員相互間的 意見과 先輩여러분의 高見을 실어 충실한 內容을 가진 名實相符한 對話의 廣場을 마련함으로써 執務時에 露出된 여러 問題點들을 遺憾없이 파헤치고 會員 各位의 公的인 일이나 私的인 여러 動態들을 把握하여 그 狀況을 會員여러분께 널리 알림으로써 會員들은 보다 친숙한 紐帶感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밖으로는 速記認識이 불충분한 여러 機關이나 人士들에게 速記界의 活動狀況을 널리 알림으로써 速記人口의 底邊 確大에 보다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年3回 發刊하던 「速記界」를 財政形便과 內容을 좀더 알차고 그 格을 높이자는 旗幟아래 年2回로 制限하였읍니다.

部數는 1,000部 豫定으로 規格은 菊判입니다.

다음은 體育大會입니다. 곳곳에 흩어졌던 會員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랫동안 맑은 공기속에서 호흡을 함께 하며 執務時에 축적된 여러 感情들을 쏟는 噴出口도 될 것입니다.

5月하늘을 이고 널따란 푸른 잔디위에서 맘껏 뛰며 會員 各自의 體位向上을 도모하고 會員間的 相互 인화단결을 꾀하는 親善行事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體育大會는 보람된 것이었으며 즐거운 行事の 하나로 일관되었던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事業目標을 設定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問題點으로 될 수 있는 것은 速記人口의 底邊 確大가 아닌가 싶습니다.

放學을 이용한 年2回의 講習안으로는 그 實效를 기하기엔 부족하고 그 期間이 너무 짧아 사실상 速記術을 연마하는데 극히 초보적인 知識의 습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에 착안한 것이 各高等學校를 對象으로 速記講習을 實施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各學校마다 特別活動時間이 있고 實業學校같은 곳에서는 하나의 專攻科目으로 設定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期間은 6個月내지 1年 정도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에 本協會에서는 各高等學校로 本協會의 意思를 公文으로 송부할 計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問題點으로 생각하는 것은 資格證의 發行問題입니다.

本協會에서 發行하고 있는 資格證을 國家機關에서 發行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모든 技能檢定資格證은 勞動廳에서 發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速記에 대한 資格證도 國家機關에서 發行케 함으로써 보다 權威를 높이고 그 格을 상승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問題點은 速記士需要處의 문제입니다.

速記人口가 少數인 것 같지만 速記術을 수료한 人口는 상당수에 달할 것입니다. 每年 배출되는 이 速記人口가 그 需要處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 많은 時間과 勞苦를 기울여 터득한 速記術을 무참히 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지 이들의 문제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速記界의 發展에 지대한 장애가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需要處가 늘어남으로써 速記봉이 일고 速記人口가 팽창함으로써 速記界는 發展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需要處 開發에 主力해야겠습니다. 그 對象으로서는 公關法人體가 적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公關法人體로 하여금 速記士를 尊重하게 하는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벽에 부딪치더라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겠지요.

여러가지 구상은 많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진전이 있을지 얼마만큼 수확을 얻을지는 2年後 任期가 다 하는 날 會務報告를 할때 決算이 되겠습니다.

2年!

그 期間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成果를 얻을 수 있는, 쉬면 쉬는 만큼 退步를 면치 못하는 必然性을 수반한 年輪이 될 것이라는 것만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잡다한 얘기들이 두서없이, 그리고 빈약하게 나열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協會를 위해 수고하신 前任 金永善 理事長님과 여러 任員陣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會員여러분 그리고 前任 執行陣 여러분의 계속적인 격려와 지도, 그리고 편달을 바라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수고하셔야 할 新任 任員陣여러분! 任期동안 굳건한 自立과 內實을 기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프랑스」의 일류 디자이너 「코코·샤넬」은 幸福 하나만을 빼놓고는 모두 성공했다는 말을 했었지만 우리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설령 그 任期가 다 하는 날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業績이 없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는 그 한마디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새봄에 새싹이 잘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어 위로는 會長團을 잘 보필하고 아래로는 會員여러분의 복리증진에 渾身の 노력을 다한 것을 다짐하며 會員여러분의 家內에 두루 평안이 깃들기를 祈願하면서 부족한 내용인 채 이상으로써 가름합니다.

###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Counse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宣傳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內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분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or) : 本協會宣傳部 Tel 75:6987

(國會速記課 第1 擔當)

# 外國速記界를 돌아보고

(西歐議會速記制度를 中心으로)

金 鎮 基(國會速記課長)



## — 目 次 —

(今號掲載分)

1. 序 論
2. 英國議會速記制度의 發達過程
3. 英國議會「헨서어드 스텝」(速記課)의 構成과 業務現況
  - 가. 構成要員
  - 나. 會期와 開議時間
  - 다. 速記節次
  - 라. 議員의 字句訂正
  - 마. 速記錄의 發刊
  - 바. 速記錄의 印刷
  - 사. 「헨서어드 스텝」의 權威

(次號掲載分)

4. 西歐議會의 速記錄發刊現況
  - 가. 本會議速記錄의 發刊
    - 1) 形 態
    - 2) 印刷裝 配付 頒布
    - 3) 速記錄의 拔萃部分印刷
    - 4) 速記錄의 公體의 性格(署名)

나. 本會議速記錄의 內容

- 1) 不正規發言의 處理
  - 2) 發言하지 아니한 事項의 掲載
  - 3) 發言內容의 削除
  - 4) 議員에 의한 速記原稿訂正
  - 5) 發言議員의 所屬政黨·選舉區의 記載
  - 6) 會議雰囲気와 情景描寫
- 다. 委員會의 速記實態
5. 西歐議會의 速記執務實態
    - 가. 記錄方法
    - 나. 速記執務方法
    - 다. 翻文方法
    - 라. 機械速記
    - 마. 速記原文原稿의 編輯
    - 바. 錄音型議會의 執務方法
  6. 議會速記士의 養成現況
  7. 結 論

.....X.....X.....X.....

### 1. 序 論

筆者는 지난 1975年 4月15일부터 5月 14日까지 1個月間 議會制度調査研究次民主主義의 發祥地이며 가장 民主主義的으로 議會制度를 發展시키고 模範的으로 運營

되고 있는 英國議會를 비롯하여 佛蘭西 伊太利 丁抹 和蘭等 西歐各國의 議會速記制度를 直接 觀察할 機會를 가졌다.

議會速記制度를 第一먼저 採擇한 곳이 英國議會이며 따라서 英國議會速記制度의 發達過程이 卽 世界議會速記制度의 發達

過程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英國議會가 速記術에 의해서 院內에서의 發言을 一言一句 빠짐없이 事實대로 記錄해서 그 速記錄을 一般 國民에게 알리기 위해서 販賣하게 되기까지의 歷史的背景과 그 過程은 議會速記制度研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課題인 것이다.

英國 議會制度의 發達過程은 絶對王權에 대한 民權의 계속적인 鬭爭이었고 議會는 國民에 의하여 選出된 代表者로써 構成되었기 때문에 院內에서의 活動을 國民에게 事實대로 報告해야 할 義務가 民主主義 發達過程에서 存在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와같은 國民의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方法은 速記術에 의한 記錄이었으니 1894年 當時 「빅토리아」女王은 言語速度와 一致한 表音速記法式을 創案한 「이사크 핏트먼」에게 議會速記錄 作成에 있어서의 그의 卓越한 業績을 認定하여 騎士(Knight)爵位까지 授與한 바 있다. 이는 議政史에서 速記士가 갖는 貢獻度를 雄辯的으로 證明해 주는 산 證據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英國議會를 中心으로 한 速記制度의 發達過程과 速記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핸서어드 스템」의 構成과 業務現況을 記述하고 다음에 西歐羅巴各國 議會의 速記錄發刊의 現況과 速記業務實態等에 관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 2. 英國議會速記制度의 發達過程

英國議會가 速記士에 의하여 速記錄을 發刊한 것은 約 170餘年の 歷史를 가지고 있다.

英國議會의 速記分野는 다른 나라의 경

우처럼 先進國의 制度를 받아들여서 채택한 것이 아니고 英國國民의 政治參與乃至 議會制度確立을 위한 民權鬭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民間에서 自然發生的으로 擧論되고 研究되어 議會로 밀고 들어 오게 된 것이다.

18世紀中葉 당시 下院은 院內에서 行해진 討論에 대해서 秘密保障을 頑強히 주장했었다.

그 理由는 당시만 하더라도 國民의 代表가 모인 代議機關(議會)은 王權奪取을 위한 鬭爭期였으므로 그 討論의 내용이 君主에게 漏洩이 될 것을 심어하던 習性 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차 王權보다는 議會의 權限이 擴大되고 또 討論內容의 公開를 요구하는 國民들의 輿論이 沸騰하게 되었다.

여기에 便乘하여 「존 윌크스」等 言論界에서는 實名으로 議會記事를 報道하고 나섰다. 이로 인하여 이에 同調한 「런던」市長 및 參事會員 1名이 投獄되기까지 하였으나 議會는 世論에 눌려서 言論界의 勝利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議會의 門은 開放되고 議會出入記者들은 記者席에서 議員들의 논총을 받으면서 取材를 하게 되었다. 이들의 取材活動은 지금의 出入記者들과는 性格이 달라 各議員의 發言內容을 充實하게 速記術을 이용하여 그대로 써서 發表하는 方式이었다.

1803년에 「윌리엄 코베트」는 新聞에서 報道되는 議會의 記事를 獨立시켜 「포리티컬 리지스터」(政治記錄)紙를 議會의 記事 專擔新聞으로 出發시켜서 議事內容에 대한 註를 달고 새로이 編輯해서 議會의 發言을 全載하여 發刊한 것이 오늘날 英國



議會 速記錄인 「오피시얼 리포르트」(Official Report)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베트」는 이 새로운 「타입」의 議會의 報告를 8년에 걸쳐서 刊行하여 全國民으로부터 好評을 받고 확고한 地位를 차지하였다.

그후 그는 自身の 權利를 당시 下院議事錄(速記錄이 아님)의 印刷人「후크 헨서어드」의 아들인 「터머스 카론 헨서어드」에게 讓渡하였다.

그 이후 그와 그의 子孫에 의하여 약 80년에 걸쳐서 發行人의 姓을 따서 題名한 「헨서어드 리포르트」(HANSARD)가 刊行되었다.

그리하여 「헨서어드」는 곧 「오피시얼 리포르트」(Official Report) (速記錄 公報)의 代名詞로서 一般人들은 議會速記錄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에도 英國國會 速記錄에는 「HANSARD」라고 表示되어 있고 國會 速記士들은 「헨서어드 스태프」이라고 呼稱되고 있다.

그 당시의 「헨서어드」는 記者席에 速記士를 派遣하지 않고 各新聞의 議會記事를 編輯하여 定期的으로 月2回 刊行하였으므로 누구나 價値있는 것이라고 인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新聞의 複寫版간아서 讀者들로부터 興味를 잃음으로써 1850年代에 破産의 徵候가 나타났다.

그러나 「헨서어드」는 그 當時만 해도 議員들에게 있어서나 政府에 있어서 매우 價値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1858년에는 政府에서 「헨서어드」救濟策으로 各省用이라는 各目下에 100卷씩 購入하여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經營面에서는 일단 難關을 克服하였으나 그것도 극히 짧은 期間

이었고 다시금 外部的 困難에 부딪쳐 事態는 점점 惡化되었다.

그 理由는 아무리 編輯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新聞의 內容을 가지고 다시 編輯한 것 만으로는 議員들이나 一般讀者들에게 滿足을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헨서어드」가 또다시 破産狀態에 이르자 議會에서는 議會報道問題를 다루기 위해서 特別委員會를 構成 1878년에는 議會文書局 豫算에서 補助金을 줄 것을 決議하고 또한 改善策의 하나로서 新聞에서 取材되지 않은 것을 補充하기 위해서 議會에 出入하여 記錄하는 速記士를 雇傭한 것을 「헨서어드」에 勸告하였다. 그래서 「헨서어드」速記士가 登場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해서 10年の 歲月이 흐른뒤 下院에서는 다시 이 「헨서어드 리포르트」에 대하여 不充分한 點이 있다고 認定하여 그때부터 速記士가 直接 記者席에서 記錄하는 方式을 勸告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T.C. 헨서어드」로서는 그와같은 方式으로서도 運營이 도저히 안되었기 때문에 1890年 그는 그 權利를 政府補助下에 運營하기로 된 「헨서어드」印刷協會에 넘겼으나 이것도 結局 失敗하고 말았다.

그 當時 「헨서어드」 運營狀況은 請負人에 의하여 記錄되고 編輯 印刷되었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院內에서 行한 發言이 지나치게 省略되기도 하고 또한 新聞記者들의 報道에 依存하는 傾向이었다.

한편 文書局에서 나오는 豫算은 不充分한데다가 請負人은 速記士들의 給料를 支拂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原因으로 해서 破産하게 되자 1892年부터는 「헨서어드」라는 名稱은 表題에서 사라지고 「오스라

이스더 에이전]이라는名稱으로 바뀌었다.

當時의 速記士들의 業務狀況은 7人의 速記士가 1人當 하루에 15分씩 5回 速記해서 2回分은 그날中으로 나머지 3回分은 다음날까지 翻文하여 速記原稿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었다.

翻文은 筆記로 하기도 하고 「타이프라이터」로 하기도 했는데 速記士들 中에는 自己負擔으로 「타이프」社에 가서 口述하여 翻文해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方法으로 翻文을 해도 그들의 業務를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新聞을 사서 거기에 나와있는 議會發言을 切取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議員의 發言 全部가 某地方紙에 掲載되었다는 情報가 있으면 그것을 求해서 오려내기도 하였다.

그 當時의 業務規程으로서는 한 議員의 發言에 대해서 第三人稱形式으로 3分之2 이상을 記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重要な 議事인 경우에는 第一人稱形式으로 記錄해야 되며 그때에는 發言內容을 全部 記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記錄은 3週間 간격으로 印刷發刊되었는데 印刷가 되기 前에 原稿는 發言者에게 돌려지고 發言者는 어떠한 訂正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며 또 編輯者는 대부분 無能했고 종종 「스캔달」이 摘發되어 말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이 「오피시얼 리포오트」는 一般 모든 사람들에게 利用되지 않았으나 이의 發刊에는 莫大한 費用을 消費하였다. 이러한 「리포오트」의 不健全性에 대해서 議會는 또 다시 委員會를 設置하여 이 「리포오트」의 將來問題에 대해 審査를 하기 시작하였다. 長長 15年이라는 期間 동안을 研究討議하여 1907년에는 이 委員

會에서 「速記錄은 政府가 作成하여야 한다」라는 決定이 내려졌고 政府는 이 勸告를 받아들여서 1908年 5月14日 財務相 「허브 하우스」氏에 의하여 具體案이 提示되었다. 卽

① 下院에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10人의 速記士와 1人의 責任者를 들 것.

② 會議가 있는 다음날 午後4時까지 速記錄이 配付될 것.

③ 訂正은 字句에 限定할 것.

이와같은 案이 제출되어 議會의 承認을 받았다.

한편 新聞界의 傾向은 과거와 같은 報道方法을 止揚하여 議會記事는 길게 報道하는 것을 簡略하게 整理하여 表現하는 描寫的 記述方法을 擇하게 되었다.

이와 反對로 「오피시얼 리포오트」는 그 前까지만 하더라도 議員의 發言을 3分之1 밖에 記錄되지 않았던 것을 方針을 바꾸어 議員이 發言한 全文을 받아쓰되 無用한 말을 削除하고 明瞭하게 整理한 「리포오트」를 作成하여야 한다고 決定하였다.

1915年 議會에서는 Press Association Agency의 議會出入記者인 「제임스 돛쇼우」氏에게 새로이 「오피시얼 리포오트」의 陣容을 構成할 것을 要請하는 決定을 내렸다. 「제임스 돛쇼우」氏는 이 要請을 받아들여서 「오피시얼 리포오트」를 正確하고 公平한 姿勢로 確立시켰다. 卽 速記士의 定員을 12名으로 增員하고 「타이피스트」 5名을 새로 採用함으로써 現在와 같은 「랜서어드 스태프」의 「레벨」에 到達하게끔 發展시킨 것이다.

1943年 11月 24日 당시 「에디터」(랜서어드 스태프의 責任者)인 「코놀뉴스」는 「랜서어드 리포오트」가 「오피시얼 리포오트」

로名稱이 바뀐지 約 40年만에 第395號의 맨 첫 「페이지」 「議事」라고 하는 자리 밑에 적은 字로 「HANSARD」라고 집어 넣음으로써 英國議會 速記錄에 「헨서어드」라는 名稱이 復活되게 되었다.

### 3. 英國議會 「헨서어드 스태프」(速記錄)의 構成과 業務現況

현재 「헨서어드 리포르트」에는 每日 發行되는 「데일리 리포르트」(Daily Report)와 1週日分을 綜合 編輯한 「위크리 헨서어드」(Weekly Hansard) 두가지가 있다.

「헨서어드 스태프」의 任務는 本會議과 모은 委員會의 會議狀況을 一字一句 빠짐없이 正確하게 記錄한 速記錄(Daily Report)이 「런던」 郵便區域內은 아침 첫 郵便으로 配達될 수 있도록 發行하는 役割이 그 任務인 것이다.

그 「헨서어드 스태프」의 構成要員과 業務現況은 다음과 같다.

#### 가. 構成要員(下院)

職 名	人員	擔 當 業 務
編 輯 長	1人	Hansard Staff의 責任者
副 編 輯 長	1人	" "의 副 責任者
編 輯 長 補	3人	1. 議事討論擔當 2. 質疑擔當 3. 常任委員會擔當
副 編 輯 長 補	2人	編輯長補 補佐
先任速記士	7人	常任委員會速記 및 錄音編輯責任者
速 記 士	14人	下院本會議速記
打 字 監 督	1人	
打 字 監 督 補	1人	
打 字 員	18人	

Hansard 補助員	2人	庶務 管理 會計
事務要員	2人	
揭示器監督	1人	議事堂內에 設置된 議事進行揭示用 TV 擔當
〃 監督補	1人	
〃 操作員	1人	

#### 나. 會期와 開議時間

① 會期：下院本會議는 1年에 大體로 36週 開議한다. 但 8月 첫週부터 10月中 旬까지는 夏季休暇關係로 休會한다.

② 開議時間：下院本會議는 月曜日부터 木曜日까지는 下午 2時30分부터 下午10時30分까지 開議하며 金曜일은 上午10時30分부터 下午 4時까지 開議한다.

常任委員會는 自體權限에 의해 決定하나 특별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大體로 火曜日, 水曜日, 木曜일에 上午10時30分부터 下午 1時까지 開議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 다. 速記節次

① 下院本會議：下院에는 7名의 先任速記士와 14名의 速記士 그리고 18名의 「타이피스트」가 있는데 速記士들은 最低 40歲이상 되는 老練한 熟練者들이며 「타이피스트」들은 말을 들으면서 每分 80乃至 100單語를 打字할 수 있는 能力者이다.

이들 「헨서어드 스태프」(Hansard Staff)들은 모두 「웨스트민스터」宮廷管理長官廳 下에 있으며 議院內에서는 印刷 및 討議委員會(The publications and debates committee)의 監督을 받고 있다.

이들의 速記執務過程을 보면 交代는 10分間(午後늦게는 5分間)인데 交代方法은

첫째번에 記錄하는 者가 正速記士(Duty reporter)가 되고 다음차례 速記士는 副速記士(Check reporter)가 되어 正速記士는 發言內容을 記錄하고 副速記士는 같이 速記하면서 議員의 姓名이나 잘 알 수 없는 文字를 「체크」하여 正速記士에게 알려주는 役割을 한다.

交代時間이 되면 副速記士는 正速記士가 되며 먼저의 正速記士는 退場하고 第3의 速記士가 副速記士가 되어 補助活動을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速記士는 速記한 것을 直接 自己自身이 翻文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피스트」에게 朗讀하여 打字시키고 있는데 「타이피스트」에게 翻讀할 때에 機械的으로 自身の 「노트」에 써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 나가는 外에 文法이나 말의 意味나 文脈에 대해서도 神經을 쓴다.

그리고 發言가운데의 明白한 「미스레이크」는 慎重한 注意力을 가지고 訂正할 權限을 가지고 있다.

②**常任委員會** : 常任委員會는 「렌서어드 스텝」의 正規職員이 直接 速記를 담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業務量을 갖고 있기 때문에 直接 速記하는 方法과 錄音으로 呷入하는 두가지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午前에 開議하는 常任委員會의 記錄을 直接 速記하고자 할 때에는 先任速記士 1人和 速記士 5人的 1組가 必要하고 錄音으로 記錄할 때에는 2人的 先任速記士와 6人的 「타이피스트」가 必要하다.

그러나 午後에 開議하는 常任委員會는 編輯할 수 있는 時間餘裕가 상당히 줄어들므로 錄音班의 人員은 3人的 先任速記士와 8人的 「타이피스트」로 늘어나는 것이다.

現在の 正規陣容으로 同時에 作業할 수 있는 能力은 1個의 常任委員會를 直接速記하고 3個常任委員會의 錄音呷入을 同時에 할 수 있는 能力밖에는 없다.

나머지 常任委員會는 隨時 契約에 의하여 外部 用役會社의 速記士 및 「타이피스트」에 의하여 速記錄이 作成되며 이와같은 速記錄編輯要員의 補充은 85名까지 充員할 수 있게 되어있다.

### 라. 議員의 字句訂正

議員은 그들이 發言한 速記原稿가 印刷所에 送付되기 前に 「렌서어드 스텝」事務室에서 그의 演說寫本을 읽어볼수가 있다.

이 경우에 議員들은 그날會議 前半期에 演說했을 경우에는 演說이 끝난 後 短時間이내에, 그날 會議 後半期에 演說했을 경우에는 演說이 끝난 後 30分이내에 「렌서어드 스텝」事務室에 와야 된다. 速記 翻文原稿와 印刷校正紙는 30分間隔으로 「메신저 서어비스」가 進行되기 때문에 印刷所에 原稿가 發送되기 前に 發言議員이 「렌서어드 스텝」事務室에 오지 않으면 字句를 訂正할 機會가 없는 것이다.

議員은 自己發言가운데 錯誤를 訂正하거나 文章의 「스타일」을 바꿀 수는 있으나 그 發言의 趣旨를 바꿀 수는 없다.

演說內容의 어떤 文章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編輯長의 責任事項이며 最終的 決定權者는 議長인 것이다.

### 마. 速記錄의 發刊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 速記錄은 每日 發刊되며 이것은 王立書籍出版社에서 一般에게 販賣한다.

本會議速記錄은 一週日分을 다시 綜合하여 索引과 함께 週刊本을 出刊하며 永久保存速記錄은 誤字등 모든 訂正을 마친

후 裝幀本으로 1年間의 索引을 添加해서 2個月 乃至 3個月마다 出版한다.

常任委員會 速記錄은 처음에는 各常任委員會別로 종이表紙의 冊子로 出刊하고 다음에는 常任委員會別로 1年間 全體分을 合하여 두꺼운 表紙의 裝幀本으로 出版된다.

#### 바. 速記錄의 印刷

速記錄의 印刷은 王立文房書籍印刷所에서 直接印刷하는데 業務量이 많을때에는 一般會社에 都給을 주어 印刷할 수도있다.

#### 사. 「헨서어드 스태프」의 權威

「헨서어드 리포르트」(速記錄)의 正確性에 대해서 1949年 2月17日 「크라프본 브라운」 議長은 “「헨서어드」는 특히 正確無比한 것이다. 그들이 틀린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그들은 單純히 速記할 뿐만 아니라 議員의 姓名을 알아야 하고 議事節次나 案件處理 등에 關하여 알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能力이 뛰어나더라도 누구나 「헨서어드」速記士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나는 마음으로 부터 이들 速記士들에게 讚辭를 보낸다”고 發言하여 「헨서어드」速記士들의 能力을 認定하고 그 勞苦를 致賀한 바가 있다.

그리하여 「헨서어드」速記士의 權威는 下院의 内外를 不問하고 높이 評價되고 있으며 그들은 “議會의 公式의인 눈”으로서의 議長의 重要性에 그 다음가는 “議會의 公式的인 귀”(The of ficial ear of the touse)라고 指稱되어 議員들로부터 尊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헨서어드」速記士들의 人員은 아직도 業務에 比較하여 不足하나 增員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缺員조차 補充이 어려워지고 있다.

원래 2次大戰前에는 下院의 新聞記者들 中에서 缺員을 補充했었다. 그들은 議會에서 오랫동안 速記로 取材活動을 하는 동안에 議事節次를 전부 이해하게 되고 議事報道에 익숙하였으므로 「오피시얼 리포르트 스태프」이 될 資格이 있다고 認定받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 中에서도 더욱 熟練度가 높은 老練한 사람들을 任命하기 위하여 40歲이상 되는 速記士를 採用하는 方法도 썼던 것이다.

그러나 戰後에 있어서 議會記者들은 取材能力과 速記能力이 一致하지 않을 뿐더러 「헨서어드」速記士의 業務에 比較하여 記者들의 業務樣相이 달라지게 되어 議會記者들로 「헨서어드」速記士의 增員내지 缺員을 補充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議會에서는 速記士의 養成制度가 論議되었으나 아직까지 實施는 되고 있지 않다.

「헨서어드」速記士들의 의견은 “優秀한 速記士는 눈치가 빠르고 行動이 敏捷하고 國語와 사람들의 理論을 잘 이해하고 發言內容을 어그러뜨림이 없이 翻文하고 또 調整하는데 있어 自由로이 用語를 驅使하고 高速度의 速記를 할 수 있는 職業的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헨서어드」의 速記士들은 速記力만을 重視하지 않으며 翻文에 있어서 批判的 判斷을 加할 수 있는 能力者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헨서어드 스태프」은 激務로 因한 人員의 增加와 缺員補充이 시급함을 느끼면서도 上述한 諸能力을 갖추어야 「헨서어드」의 權威를 維持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헨서어드」速記士를 採用함에 있어서 신중을 期하고 있다.

(次號에 繼續)

# 速記의機械化

— 그構造發達의 現在와 未來 —



姜

駿

遠

도구라야 일반 문방구인 연필이나 「보울펜」과 종이만 가지고 사람의 귀로 듣고 손으로 속기문장을 써서 보통문자로 반문(反文)하는 필기(筆記)식으로 이것을 표음(表音)식으로 완성한 속기는 1837년 영국 「피트맨」에 의하여 성공되었고 뒤미처 알파벳 타자기가 발명되어, 능숙하면 어속(語速)의 반 분량을 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실은 기계속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겠다.

### — 스테노타이프 —

다음 과제가 화학화(化學化)는 될 수 없어도 최소한 물리화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여 추구하여 성공한 것이 미국인 「와아드·스톤·아일랜드」의 1911년에 실용을 하게 된 「스테노타이프라이터」로서 현재 우리들이 말하는 속기 타자기다. 이 타자기는 1타(打)에 「알파벳」 한글자밖에 칠수 없던 일반타자기를 「피에노」식으로 동시에 1자에서 21자까지를 두드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일반 타자기는 단어마다

	原文	反文
×	手記	手記나 手打
1.	手打	手記나 手打
2.	手打	自動反文
3.	錄音	手記나 手打
4.	自動記錄	自動打字

띄어쓰기를 위하여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하지만, 속기타자기는 신문 권취지(卷取紙)가 돌면서 인쇄되어 나가듯 1타이든 21타이든 늘렸다 손을 메기만 하면 한 서선(書線)이 돌아서 감겨버리고 다음 타자를 기다리는 서선이 나타나는 자동이행(移行)식이다. (켓 1=키이면 20cm 위의 卷取紙幅 6cm의 속기타자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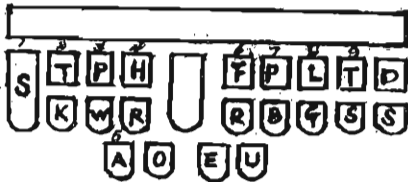
2=美誌에 실린  
속기타자 姿勢)

「키이」의 배열은 컷 3과 같으며 STPH·KWR은 '엄지를 제외한 왼손으로 치기로서 자음전용 AOEU는 모두 모음 전용인데 도루지 엄지 손가락으로 치기이다. 즉 왼쪽 AO는 왼엄지 EU는 오른엄지로 친다. 오른쪽 FPLTD RBGSS는 엄지들 뿐 오른손으로 친다. 「피애노」처럼 한글로는 받침에 해당하는 자음에 쓰는 「키이」로서

1



### 스텍노라이프 키 배열



동시에 모든 「키이」를 칠 수 있으므로 bag도 stand도 각각 한번씩 눌러 타자를 할 수 있다. 온「키이」를 일제히 누르면 STKPWHRAOEUFPRBLGTSDS 21자가 빈틈없이 한줄로 찍어진다.

다음 「키이」의 배열을 살펴보면 모음은 제 3단 AOEU로 나타낸다 하더라도 26자 「알파벳」 가운데 21자가 자음으로 필요한데 자음군(群)에는 제 1단에 STPH 제 2단에 SKWR의 7자(S는 1단 2단 공

용)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7자로서 21자를 칠 수가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되었지만 △ 속기「타이프」의 표시문자는 그 자체가 「알파벳」이 아니라 일종의 부호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알파벳」이 아니라 도라도 수학기호나 교통신호같은 서로 판별(辨別)이 뚜렷한 또다른 세계인류 공통의 기호라도 좋고, 좋다가 보다는 그랬더라면 한 기계로써 언어와 문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자기나라 속기기로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첫자음으로 결여된 dfg×lmnvz는 가령 d는 TP f는 PH g는 KW...식으로 「키이」사이를 눌러 (間打) 복타자(複打字)를 하면 그만인 것이다. 첫자음의 2중 복타자의 가능성은  $7 \times 7 = 49$ 자가 가능한 것이다. 또 3중이나 4중타자도 가능하니 소재(素材)는 무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좌우엄지로서만 치는 모음은 기본모음 AEIOU 가운데 1의 「키이」가 없으나 역시 복타(複打)로써 해결하고 이 모음복타의 여지는  $4 \times 4 = 16$ 이다. 모음뒤에 있는 자음 즉 받침은 「키이」가 열인데 S는 둘이다. 키이에 부족되는 것은 mnv 정도인데 역시 복타  $10 \times 10 = 100$ 의 여유 가운데서 고르면 그만이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기계속기에서도 역시 표음주의를 취하므로 묵음은 안 치며 자음 C는 kus로 나뉘어 버리고 Q는 k로 j는 g로 X는 ks로 반모음 WY는 ui로 처리되고 만다. 결합하여 설명하면 숫자(數字) 1~9까지는 좌자음 우받침의 제 1단 STPH를 1234로 FPLTD를 5~9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은 「리본」 이외에 붉은 「리본」이 있어 「레버」를 바꾸어 누르면 붉게 쳐지는 구조도 생겨 특별한 약어로 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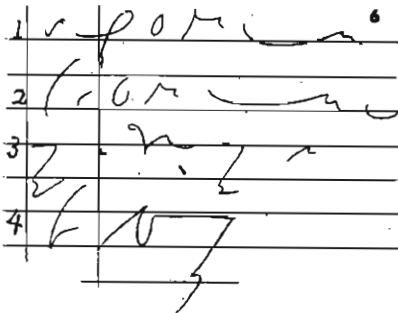


외하고 단어수는 28어 「스토로옥」 수는 23타(打) 우리말 식으로는 55음절(즉=글자수)을 23타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한타가 2.7 음절을 능히 담당하게 되므로 수련 기간은 길어도 성업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예 (5)를 행(行)차례로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1. Are you 2. presently 3. 誤打로서 무효화 4. employed 5. by 6. a 7. company 8. known 9. as 10. Certified 11. Industries? 12. (대답)이라는 속기사. 자신의 메모 13. Yes 14. I am 15. (질문) 16. Is that 17. a 18. division 19. do you know 20. of 21. some 22. larg 23. -er 24. corporation? 25. (대답) 26. Yes. sir. 이상 1타가 한단어인 것이 원칙이지만 2타가 한단어는 22와 23. 한타가 두단어는 1. 14. 16. 26. 한타가 세단어는 제19행임을 알 수 있다.

결하여 수필속기의 한 예로서 「그백」식을 들어보면 22어(한글식으로 54자)를 31 필동(筆動)으로 쓸 수 한필동이 1.75음절을 담당하게 되니 이것 또한 실용이 가능한 속기법임을 증명한 것이다. 어느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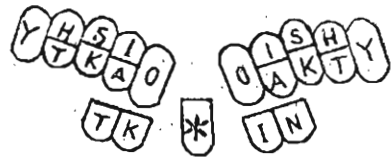


기법이든 한필동이 두음절 기록을 담당하게 되면 1초간에 여유있게 정확히 3필동을 써서 6음절을 정독(正讀)하게 되니, 어속이 빨라진다고는 하지만 당분간은 쓸만한 법이다.

「그백」식 문예를 읽으면 아래와 같다.  
1...of the nation's antitrust laws, 2. But the antitrust laws are 3. inforced, if they are inforced at all 4.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일본에 있어서의 「스테노타이프」는 종전 직후의 연합군정당국의 중용에 의하여 개발되기 시작, 1949년부터 3년간 훈련을 거쳐 재판속기부터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8할 이상이 한자발음의

日本速記タイプ 키イ配列図



한자어이므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해당하는 발음(末音=받침)이 자주 쓰이고 우리말과 같은 첨가어이므로 조사나 어미가 자주 잇따르므로 기계구조 자체는 미국것과 다름이 없으나 「키이」배정에 일본어적인 개혁을 이루었다. 즉 제3단은 모음으로 쓰지않고 한자음독에 잦은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ㅇ와 자음에 적용하고, 왼쪽 1·2단 「키이」를 교묘히 자음모음의 한개음절 더 나아가서 중모음 ㄱㅇㅁ에 이르기까지 1타로써 처리하고 오른쪽 「키이」들도 마찬가지로 한개 음절을 형성하게 새 고안을 하였다.

일본 타자속기 방식이 미국것보다 우수한 점은 오른쪽 자음모음 타자순서가 우

행(右行) 일변도(一邊倒)가 아니라 중심을 향하여 좌행을 하는 방식은 새로운 타자 방식이며 또 좌우 두손 열손가락이 퍼지는 자연스런 모양대로 「키이」와 위치를 경사가 느린 「알파벳」 V자모양대로 전개한 점은 일단의 진보라고 볼 수 있다.

### 1. 우리말 「스테노도」 가능

수련기간 적어도 2년이라는 것이 지루하여서 험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스테노타이프」를 쓴지 오래고, 쓰다가 발견한 결점을 지닌채 좀처럼 개량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말 속타기는 그들의 실패의 경험에 우리말의 어음, 어법, 약어가 되어야 어휘등 모든 소재는 완비되어 있는 셈이니 적극 연구를 거듭하면 그들보다 조금 나은 「스테노타이프」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의 문화에 대한 욕심은 식욕보다도 강한 것이라 위와 같은 방식을 월등 앞선 새 속기방식의 개발에 사토잡혀 고생하는 분이 있음을 듣고 있다.

### 2. 수타(手打) 자동반문기(自動反文機)

「스테노타이프」는 이에 실용이 증명된지 60년이 넘었으니 인류의 문화재로 승인을 하기로 하고 다음의 문제는 기제로 찍힌 인자(印字)이니 이것을 사람이 반문을 하지 말고 기계가 반문을 해주었으면 하는 욕망이다. AP나 UPI의 전세제지사나 계약대리점에서 쓰고 있는 「텔레타이프」를 「스테노타이프」에 연결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우선 부정적인 면은 발신국에서 종이 「테이프」에 여섯개 예정위치에 구멍을 뚫어 「알파벳」을 나타내 놓으면 송신기가 정확하게 전세제를 향하여 「물스」부호의 전파로 바꾸어 보내면 수신자가 이를 자동수신하는 장치가 「텔

메타이프」다. 자동반문의 구상은 「스테노타이프」의 「키이」에 연결하여 일반 「타이프」에 문자로 재현시키자는 집착이다. 많은 애로가 있지만 연구해 볼 만한 과제다.

### 3. 녹음기의 선용(善用)

녹음기 이전의 「레코드」는 유성기라 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오래고 「에드슨」이 이미 1850년경에 발명한 것인데 다만 급정지 급기동(急起動)이 안되었으므로 그 녹음을 문자로 쓰지를 앓았으나 근래는 이런 속도조절장치가 생겨서 손으로 쓰든 지 일탄타자기도 어색의 반을 칠 수 있어서 속기대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 4. 완전자음의 속기와 반문기

거의 공상에 가까운 일이라니 생각하지 말고 인류는 어느 기계앞에서 말만 하면 스스로 「기록」이 되고 「타자」가 되어 나오는 시대를 상정할 수가 있다. 이때의 기록이란 반드시 자기나라 문자가 아니라도 좋으며 어느 세계적인 단일 문자가 기계의 발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세계 문자」가 되고 어느나라 말도 이 글자로 쓰게 된다. 예를 들면 영어는 원래 「알파벳」으로 쓰던 것이 아니며 월남은 한자를 폐지하고 「프랑스」 신부가 만든 「알파벳」을, 「터어키」는 고유문자를 버리고 「케말파샤」의 「알파벳」 도입으로 문자혁명술 이르킨 바도 있는 것이다. 무슨 원리로서 자동기록이 될 수 있는냐는 4년전에 일본 「아사히」신문이 「컴퓨터」가 속기한 능력정도를 소개한 바가 있다. 즉 「컴퓨터」는 숫자제산을 위한 기억기(記憶機)이므로 「인풋」(in put)을 해주지 않은 단어는 듣고도 재현을 못한다. 가령 「서늘한 울 가을」하면 「서늘한」 「울」 「가을」은 모두 인풋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타자기

에 연결되어 타자가 되어 나오지만 청량(淸涼)한 금추(今秋)는」하던 전혀 안찍혀 나오든지 단어를 바꾸어 「서늘한 올레 가을」로 나오든지 하는 시험에는 성공한 바가 있다. 간단한 사전에도 일본어는 20만 단어가 올라있는데, 「컴퓨터」가 기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성음학 연구분야에서 그 기기(機器)를 동원한 성과인

메 사람의 성음은 모음은 주파수나 대역(帶域)이 나타내어 문자화할 수가 있으나 자음은 도무지 진폭(振幅)이 안나타나므로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속기연구자는 이제 전자(電子)학자가 되어야 할 시대는 온 것이다.

(協會指導委員)

제 7, 8회 국어·영어 速記士資格檢定試驗

日 時: 1974. 10. 24(7회) 1975. 4. 27(8회)  
場 所: 國會速記士養成所

—合格者名單—

■ 제 7회 國語速記

- 1級 김경중 정명순 손재욱(計 3名)
- 4級 김정숙 신현숙 조창진 유성수 정홍호 김점동 김광복 김현석 양경춘  
최길주 박기만 박연숙(計 12名)
- 5級 김대수 전진명(計 2名)

英語速記

- 5級 황용길 강연미 김영자 임영빈 홍혜련 송혜자 신정현(計 7名)
- 7級 유명배(計 1名)

■ 제 8회 國語速記

- 1級 홍기표 조정구·김난희 김장석 정대길 이애선 김종철(計 7名)
- 4級 민우홍 강진남 유순태 김성명 임창길 이형근(計 6名)
- 5級 김성자(計 1名)

英語速記

- 5級 장경애(計 1名)
- 6級 임순래(計 1名)
- 7級 정경희(計 1名)

# 言語速度에 對한 考察

—말은 왜 빨라지느냐—

金 永 春

1. 序 論
2. 時代的 背景
3. 生活形態의 變化
4. 社會構造의 變化
5. 文明發達의 所產
6. 鬭爭意識의 膨大
7. 結 論

## 1. 序 論

創世後 人類가 存在하면서부터 人類는 그들의 生活手段의 한 方便으로서 各自의 思想과 感情을 소리로서 나타내는 말 즉 言語라고 하는 것이 發生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原始時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各己 그 地方과 民族 혹은 部族에 알맞은 無數한 말들이 發生 혹은 派生되었다가 어떤 말은 消滅되기도 했고 혹은 原始狀態 그대로 存續되어 오기도 하며 어떤 말은 殘存하면서 改良 發展을 거듭하여 오늘날까지 有效適切하게 使用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奇妙한 것이어서 한 國家안에서도 地域別로 遠隔나 抑揚 長短 쓰임새가 各各 그 地域別 特殊性에 알맞게 짜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서 中共과 같이 넓은 나라들에서는 同一民族이지만은 方言族과 標準語族의 言語가 判異해서 遠距離部族間에는 서로가 意思疏通에 매우 困難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言語의 速度에 있어서도 伊太利人이나 西班牙人 獨逸人들처럼 多血質의인 民族들은 매우 빠르고 敏捷하게 表現하지마는 熱帶地方 民族들은 매우 緩慢하고 나른하게 表現을 하여 自然環境의 影響을 直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範圍를 좀 좁혀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순수한 濟州道의 말은 그外 他道 사람이 잘 解得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現象이다.

言語의 使用과 解得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判異하지마는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普遍的인 現象이고 全體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言語의 速度에 있어서도 地域別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嶺湖南地方語는 약간 速度感있게 使用되고 있으며 忠淸道地方語는 느리고 서울을 中心한 京畿道地方語는 普通程度의 速度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地方別 分類를 떠나서 年齡別分類를 보더라도 少年期 中年期 老年期에 따라 各己 그 말의 쓰임새도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少年期에는 用語의 使用幅도 貧弱하거나 成長期에 있어서 모든 것이 未熟한 까닭에 言語의 速度感을 느낄 수 없는 것이나 中年期에는 用語의 使用幅도 豊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完熟段階인 까닭

에 그것들의 複合的인 結果는 자연히 速度感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老年期에는 用語의 幅은 豐富하다 할지라도 氣力の 衰頹와 人生의 幕을 닫게 되는 黃昏期에 접어들면 그들에게는 人生의 回想이나 있을 뿐이기 때문에 言語의 速度感은 別로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言語의 쓰임새나 速度는 社會各階層別 年齡別 環境別 地方別 差異가 약간씩 있겠으나 本欄에서는 全般의이고 普偏的인 言語의 速度에 대해서만 考察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言語의 速度가 왜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論하기 前に 果然 言語의 速度가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明白히 알아 證明해야 될 것 같다.

過去에는 言語의 速度가 약간 느렸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程度 빨라졌는가? 빨라졌다면 어떤 原因들로 해서 빨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매우 推想的인 問題이지만 檢討해 보려고 한다.

言語의 速度가 빨라졌는가에 대한 證明方法은 몇가지가 있겠으나 冊名이 速記界인 만큼 速記라는 媒體를 통해서 알아 보려고 한다.

速記를 基準해서 보면 過去 十數年前에는 1分間 290字내지 300字를 記錄하면 當時로서는 速記業務를 遂行함에 支障이 없었으나 그 後 數年이 지나서는 1分間 320字程度의 能力이 要求되었고 近來에는 1分間에 330字내지 340字까지의 速記能力이 要求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高速을 必要로 할 날이 곧 오리라는 前提下에 速記의 高速化에 對備한 研究開發이 進行되고 있는 것이며 이 事業은 앞으로도 繼續되어져야 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實情

인 것이다.

이 한가지 實證만 가지고도 言語의 速度는 年年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實感케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原因들로 해서 이와같이 言語의 速度가 빨라지느냐 하는 것을 몇가지로 檢討分析해 보려고 한다.

## 2. 時代的背景

(言語의 側面을 볼때)

우리 先祖들의 生活狀態를 더듬어 보면 當時는 소위 兩班社會와 常人社會로 혹은 支配階級社會와 被支配階級社會로 確實하게 兩分이 되어 있었고 前者는 社會의 指導階級으로 行勢였었고 後者는 奴隸와 비슷한 生活로서 말 한번 크게 해보지 못하고 지내야 했던 時代의 歷史를 알 수 있는데 當時 社會를 支配했던 指導階級이라는 사람들의 生活哲學은 한마디로 「緩」의 思想으로서 「緩」만이 至上最高의 生活倫理라고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行動은 緩慢하게 步行은 緩步로 言語는 “○○이라 여쭙어라”하는 式으로 下人이나 常人을 中繼人으로서 세우어야 對話를 했던 間接言語傳達方式을 擇했고 실사 同級人끼리 對面을 해도 不知何歲月格으로 느릿느릿한 對話를 함으로써 그것이 語法의 正道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여야만 自身들의 人格이 높아지는 것으로 認識했던 當時 社會通念때문에 결코 敏捷함이나 疾足이 行勢할 수 없었으며 모든 言語는 그 速度에 있어서 매우 緩慢했었고 더구나 必要不可缺한 意思傳達外는 매우 삼가하고 操心했던 까닭에 言語의 使用頻도가 매우 적었고 制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時代와 世代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 自然히 生活樣相이 바뀌어 감에 따라 그와같은 그릇됐던 社會遺念은 徐徐히 拂拭되어 갔으며 오히려 反對現象이 나타나기 始作한 것이다.

### 3. 生活形態의 變化

生活形態의 變化는 言語의 加速化를 促進하기 始作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從前的 單純化生活形態로부터 多樣化生活形態로 生活方式이 變遷되어 가면서 소위 社會指導階級이라 自處하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 周圍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單純한 生業 즉 原始的의 農業形態나 商業(매우 純하게 여겼었다) 漁業 物物交換程度의 社會生活形態란을 갖추던 될 수 있었던 까닭으로, 아주 制限된 小範圍의 言語면 萬事가 通하던 時代에서 오늘과 같이 專門化된 農業과 工業形態 그리고 市場을 中心으로 한 複雜한 去來方法等은 必然的으로 그것들을 連結시켜 주어야 되는 去來의 한 要素인 多樣한 用語의 發生을 隨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複雜化된 社會生活에 自身들을 適應시키기 위하여서 社會 各界各層의 人事들과의 接觸이 보다 切實해지고 活潑해 지자 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相對的으로 時間의 制約을 받게 되는 生活이 되었으며 言語의 範圍도 擴大되어지고 一定한 時間內에 自己意思를 充分히 相對에게 納得시켜야 된다는 躁急함에서 可能한 限 仔細한 말을 빨리 하려고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現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習性을 남게 된 것이며 이러한 習性은 隱然中에 社會全體에 言語의 加速化를 促進하게 했을 것이다.

### 4. 社會構造의 變化

(政治側面을 볼때)

社會構造가 少數支配階級社會 혹은 君主制로부터 民主制의 構造로 變遷되어 감에 따라 여기에 따르는 言語의 形式 또한 少數人의 專有物로서 傳諭에 그치던 政治構造가 民主的인 政治構造로 바뀌면서 多數國民이 主權者의 位置에서 直接 혹은 間接的으로 政治參與의 機會가 넓어지고 社會 各分野에서 必要로 하는 專門的인 用語의 使用이 빈번해 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各自가 屬해 있는 位置에서 自身들의 必要에 의해서 많은 말을 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社會構造의 變化하는 幅이 넓어지면 넓어질 수록 거기에 適應하기 위한 處世의 手段으로서 많은 말이 必要하게 되었을 것이며 더구나 餘裕自適할 만한 形便이 못되고 時間의 制約을 받는 躁急한 形便下에서 自己意思를 充分히 發表해야 되겠다는 充滿된 義務感은 結局 그 言語의 加速化를 促進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社會構造의 變化는 社會 各分野의 重要構成要員이 過去와는 달리 血氣와 霸氣가 있는 靑中年으로 탈바꿈했다는 事實이다.

全般的으로 이들의 言語는 迫力이 있고 能辯이며 達辯인 것이며 이러한 結果는 自然發生的으로 言語學上으로 본 社會構造 全體를 젊게 했을뿐만 아니라 通常 言語에 주는 直接的인 影響은 매우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對話의 廣場이며 法의 產室이며 民意의 殿堂이라 할 수 있는 國會를 보더라도 議員들의 平均年齡이 年少化하고 있다는 事實과 活動分野가 擴大되고 있다는 事實등

은 言語의 量産을 隨伴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특히 現 國會에서 議員들의 發言速度가 빨라진데 대한 直接的인 原因은 國會法 第97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國會法第97條(發言時間의 制限)

① 議員의 發言時間은 45分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議長은 15分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限하여 延長을 許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補充發言과 議事進行發言時間은 10分을 초과할 수 없으며 身上發言時間은 20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③ 議員이 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部分에 대하여는 議長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會議錄에 掲載할 수 있다. 라고 規定하고 있어서 過去에는 한 두時間 혹은 議員이 하고싶은 대로 發言을 할 수 있었고 時間制限이 없는 利點을 살려 Flibuster(議事妨害)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10餘時間 이상을 發言한 記錄을 세운 議員도 있었던 것으로 이 경우는 發言 그 自體에 目的이 있다기 보다는 時間을 끌어서 最大限 議事를 妨害하자는데 目的이 있었기때문에 그 發言의 速度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短點을 없애고자 새로이 改正된 國會法에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 發言時間을 制限했기 때문에 이 制限된 時間內에 發言者는 自己의 意見을 速히 相對會衆에게 理解시키고 說得시켜야 되겠다는 義務感과 責任感 그리고 意慾은 스스로 發言을 制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몇 분 남지않은 約束時間에 約束場所에 가야 되는 경우 步幅은 넓어

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理致일 것이다.

그래서 制限된 時間內에 빠른 말을 해야 되는 議員들은 그러한 機會가 잦아질수록 自身들도 모르는 사이에 習慣化되어 저서 日常言語의 加速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社會一般에게도 直接間接의 影響을 주게 되었으리라 보고는 것이다.

5. 文明發達의 所産

未開한 나라나 野蠻을 벗어나지 못한 環境에서 生活하고 있는 사람들은 自己들에게 가장 切迫한 衣食住以外는 過히 不必要하기 때문에 그 衣食住 以外分野는 文明人들의 그것 처럼 生活에 直接的인 影響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日常言語도 未開한 原始的인 것이어서 겨우 衣食住에나 必要할 程度의 극히 制限된 言語를 使用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衣食住라는 것조차도 文明人들의 그것과는 對照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衣食住 自體에 대한 用語도 文明人들과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未開한 나라나 野蠻人들에 대해서 言語의 速度 云云하는 것은 「넌센스」이겠으나 反對로 文明이 發達한 先進國 내지 中進國에서는 그 文明의 發達 때문에 自然히 生活이 奔走스럽게 되고 그 奔走스러움에 발맞추어 나가려다 보니 結局 거기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은 發達된 言語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말을 통해서 疑問을 提示하고 말을 통해서 解答을 求하고 말을 통해서 說明이 되어지고 말을 통해서 納得이 되어지고 말을 통해서 去來가 成立되는 말의 洪水 속에서 文明人들은 혜엄을 쳐야 되는 現實狀況이 言語의 加速을 促進시켰다고 본

다.

또한 文明의 發達程度에 따라서 各自가 處理해야 될 事案도 肥大해 졌고 그것들을 短時間內에 完結짓지 않으면 안될 만큼 時間의 制約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도 原因이 있겠으며 이로 말미암아 新聞이나 雜誌를 보면 혹은 讀書을 하는 데에도 한 가롭게 한字한字 눈여겨 보기보다는 速讀해버리고 다시 活動을 해야 된다는 躁急함은 讀書에 있어서도 速讀을 要請하게 되어 이것 또한 言語의 加速化에 間接의 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또한 言語의 藝術이라 할 수 있는 放送이라는 外部의인 刺戟도 無視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各種 事件의 迅速한 報道를 그 使命으로 하는 放送은 그것이 모두가 言語를 통해서만 表現이 可能한 것이다.

특히 各種 中繼放送의 경우 그것을 聽取하는 多數人들은 中繼者의 流暢한 言語와 짧은 時間에 刻刻으로 變化하며 動作되는 現場을 寫實的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高速으로 하는 말에 自身도 瞬間瞬間 刺戟되어 그것이 言語生活에 加速化影響을 나타내게 되리라고 본다.

또 遠距離者와의 意思疏通을 위해서 電話를 利用할 때도 大部分 빠른 말로 通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分으로 制限된 公衆電話나 一般電話 料금이 비싼 市外電話로 通話할 때 느릿느릿 通話하는 사람이 없으며 制限된 時間에 充分한 意思를 相對方에게 傳達하기 위해서 빠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生活이 每日每日 反復될 때 日常生活言語는 自然히 加速化되어 지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 6. 鬭爭意識의 膨大

文明이 高度로 發達함에 따라 社會環境과 生活이 多樣化되어지고 複雜化되어 감에 따라서 각 사람은 거기에 適應하고 生存하기 위해서 生存競爭을 위한 鬭爭意識이 膨大해 지는 것이다.

달리는 選手는 1秒라도 빨리 달리어 勝利한다는 意識이 強하면 強한 사람일 수록 鬭爭意識이 많은 사람일 것이며 이런 사람은 좋은 記錄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原理는 日常生活에서도 그대로 適用되는 것으로서 이와같은 鬭爭意識이 없다면 오늘의 이 熾烈한 生存競爭의 時代에서 落伍되어 適者生存의 原則에서 脫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優勝劣敗의 소용돌이 속에서 生存을 위한 어떤 面에서도 優勝者가 되기 위해서 不斷한 鬭爭意識을 갖게 되는 것이다.

生存을 위한 鬭爭은 그 鬭爭의 度가 深하거나 激할 수록 거기에서 行해지는 言語는 매우 빠른 것이다.

예를 들면 煩雜한 市場이나 競賣場에 가 보면 말을 적게 그리고 친척히 하면서 自己物品을 남보다 많이 팔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販賣競爭에 위어든 商人들은 相對의 購買欲을 刺戟시켜주기 위해서 빠른 말솜씨로 張皇한 說明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이 生活化되고 더구나 市場經濟가 發達한 가운데 生活하고 있는 現代人들은 그러한 市場內의 競爭속에 묻혀야 되는 運命때문에 自然히 이들 自身을 비롯하여 社會全般에 直接 혹은 間接의 影響을 받고 주어 言語의 加速을 添入시켰다고 본다.



## 7. 結 論

모든 것이 現代는 Speed時代라고 한다. 이 Speed는 地球 이편에서 저편을 同時에 보고 들을 수 있고 가까운 이웃과 같이 서로 對話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혹은 사람이 며칠만이면 月世界를 往復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全國이 一日 生活圈化 했다는 것만을 意味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는 文明人들의 生活과 그 手段方法 全體와 거기에 附隨되는 것 까지도 Speed化 했다는 것을 意味할 것이다.

緩行보다는 超特急이 要請되고 一般道路보다는 高速道路가 要請되고 있는 時代이며 安全第一主義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던 時代에서 지금은 빠지는 危險을 무릅쓰고라도 우선 건너놓고 봐야 되는 性急한 Speed를 必要로 느끼게 된 것이다.

輻輳하는 事務를 迅速히 處理하기 위하여 Computer가 登場하게 되었다.

이렇게 人間의 生活周邊이 Speed化되어 가기 때문에 磁石에 鐵이 끌리어 가듯 言語도 例外일 수 없이 Speed化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分明히 言語의 速度는 빨라지고 있다. 그 原因들을 筆者 나름대로 檢討하고 分析해 봤으나 上記한 原因들 외에도 많은 原因들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속시원하게 指摘해 내지 못하는 것은 淺學非才라더니 정말 아는 것이 없어 충분히 拔萃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

다만 編輯部에서 주어진 題目을 받고 限定된 紙面에 좀더 충실하게 記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痕迹만을 남기고 끝을 맺는다.

(協會研究委員長)

## 原 稿 募 集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間의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者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本協會 宣傳部(國會速記課第1擔當) Tel (75) 6987

- ◇紙表그림.....세로 가로 15cm정도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回 想 記.....200字原稿紙 15~25枚
- ◇隨 筆.....200字原稿紙 15~20枚
- ◇詩, 詩調, 散文, 기타提言 등

※ 採擇된 原稿에는 所定の 稿料를 드립니다.

第 16 回 速記講習을 마치고

— 參 席 者 —

李廣賢 (國語速記講師)  
金東遠 ( " )  
金善弼 ( " )  
金永春 ( " )

盧英民 (英語速記講師)  
高太仲 (總務財政部長)  
黃實河 (事業部長)

司 會 : 金允洙 (宣傳部長)  
記 錄 : 河良塔 (協會記者)  
日 時 : 1975年 3月 8日 12時

○ 司 會 :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定款第3條 목적사항의 하나인 速記文化 學術의 研究 發展 및 普及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16회라는 단기강습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敎案을 연구하시고 직접 강의들 맡아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겨울에 있었던 第16회속기강습을 평가분석해서 앞으로 속기학술보급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실 차례는

1. 단기강습을 통한 속기학보급의 意義
2. 16회 속기강습의 결과분석
3. 協會 속기학술보급사업의 방향

이러한 순서로 해서 우선 定款에서 말하는 속기학술의 보급이라는 목적사항과 단기강습의 意義가 과연 합치되느냐 또 受講生들에게 어느정도의 深度를 보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 短期講習의 意義 —

○ 李廣賢 : 우리가 16회에 걸쳐서 강습을 계속해 왔는데요.

意義라면 대중보급을 위한 것이니까 문자 그대로 底邊擴大를 위한 대중보급에 意義가 있겠고 우리가 속기에 門外漢들을 3週동안에 속기의 기초를 보급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高太仲 :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기협회의 定款事項에 속기문화학술의 보급이 나와 있는데 協會가 속기를 널리 보급한다 해도 우리는 어떤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것이 이러한 강습인데 아까 深度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속기는 몇주정도 듣고 이해하고 그칠 수가 없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3週동안 속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속기는 이런거로구나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됩

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널리 속기를 보급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속기인의 底邊擴大라는 목적에 符合되고 그런 사람들을 속기인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金永春 : 속기강습의 意義는 일반인들이 속기에 대해서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속기라는 것을 어렵듯이 아는 사람이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 속기 보급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또 속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速記術을 익히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位置에서 속기에 관한 自身들의 필요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 하는데 이 보급의 意義와 目的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司 會 : 강습이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實技面에서 생활의 필요성에 다소라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자는 말씀이었읍니다.

盧先生은 어떻습니까? 영문속기의 경우에는 定款에 있는 속기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盧英民 :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定款에 있는대로 보급에 重點을 둔다고 하던 3週에다가 한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좀더 연장해가지고 60자나 80字정도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 큰 意義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 金善弼 : 강습이라고 하면 속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講習期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여기계신 여러분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다 느껴졌죠.

그렇지만 속기를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겠죠.

○ 司 會 :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단기강습이라고 그러지만 일단 속기학술보급이라고 하면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소라도 實技意慾에 충족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意義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第16回 단기강습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 第16回 속기강습의 결과—

○ 黃實河 : 속기강습신청은 금년 1월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국어가 698명 영어가 202명 해서 900명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습한 결과 修了者는 국어가 423명 영어가 125명 합해서 548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숫자는 例年에 비해서 이번에는 신청인원이 많아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金永春 : 저는 강습결과를 세가지로 分類해 봅니다.

첫째는 속기를 일반인에게 인식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는 實生活에 다소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즉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을 전부는 다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量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自負합니다.

세째는 수강생들에게 의무를 부과하

었다. 이 사람들이 당장에 배운 全理論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운 理論을 根據로 해서 열심히 연마하면 자기들이 實生活에 100%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욕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講習의 결과는 효과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 李康賢 : 이번 강습을 받은 受講生들의 構成을 보면 한 70%가 대학생 나머지 30%가 일반인으로 볼 수 있지요. 대학생들은 이번 강습을 受講하고자 하는 목적이 속기를 알고자 해서 배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은 속기를 자기 日常生活에 필요해서 배우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에 비해서 금년에 기후관계가 따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修了生이 좀 많았다는 것이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속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週동안 우리가 가르치는 분량은 좀 무리했죠. 이것은 본인들이 講習을 끝마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 연마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분야만큼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강의「노트」에 반영한다든가 「메모」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高太仲 : 總務입장에서 자꾸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성과는 상당히 컸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協會자체로서 노리는 효과면에서 볼때에 성과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수강생의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接受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속기를 대

부분이 전혀 모르고 배우러 온 사람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3週동안 배우면 다 완전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면 다소 쓸 수 있느냐 就職이 되느냐 그렇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큰 期待를 가지고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상 3週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안되겠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 學校도 방학이 오래 되고 집에 있자니 심심하고 그래서 시간이나 보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자기 職場에서 기록을 담당한 사람이라든가 선생이라든가 자기가 배워가지고 돌아가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失望을 안겨 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協會의 목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受講生들의 입장도 생각할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강습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래도 해보니까 속기가 빠르고 쓰기 좋다 한가지 기술을 배웠다 전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PR문제입니다. 너무나 속기를 몰라요. 제가 市立婦女事業館에서 느꼈는데요. 그전부터 속기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몰라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機關에서도 속기를 배우고 싶어도 이러한 속기 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조차 몰라서 못배우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PR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 金東遠 : 우리가 속기강습을 底邊擴大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강습을 받고서 나간 학생들이 3週간 배워가지

고서 과연 속기라고 하는 것이 배울만 하구나 그래도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는 하나의 자랑거리라는 共感이 갈 수 있게 속기라는 것은 좋구나 하는 좋은 인식도 있으나 3週간 배워보았더니 어렵기만 하고 형편없구나 하는 두가지의 갈림길에서 과연 좋은 의미의 %가 많으나 아니면 속기를 배워봐야 어렵구나 하는 %가 많으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 司 會 : 이번 16回 단기강습의 產婆 役을 맡으셨던 事業部長께서 지금 金先生께서 말씀하신 좋은 인식과 나쁜 인식의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黃寅河 : 글썄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좋은 인식을 修了生의 비율인 60% 나쁜 인식이라기 보다는 과연 어렵구나 배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중도에 그만둔 40%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60%의 숫자가 修了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대부분 認識을 해서 의욕적으로 학생들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 金永春 : 이것도 一種의 학문이요 기술인데 100% 시작을 해서 100% 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敎育도 학교에서 원하는 바는 모든 학생이 100% 졸업을 하고 優等生이 되는 것을 바라지만 우등생은 불과 1내지 2%밖에 안되고 더구나 중간에 自退生 혹은 落第生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각계각층의 雜多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습을 하는데 설령 이것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이 몇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反對로 성실하게 끝까지 출석하고 修了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짧은 것을 아쉬워하는 多數의 수강생도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 면을 보아야지요.

또 우리가 서울인구 전체에게 速記를 강습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속기를 배우고자 찾아오는 뜻있는 사람에게 강습을 하고있는 것이니까...

○ 李康賢 : 제가 한 10年동안 강습을 하면서 受講生들하고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짧은 期限이지만 열심히 배운 사람들은 와가지고 開學이 되니까 시간상 계속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3週동안 배운 것을 상당히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成績이 좋지 않은 사람 결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속기가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강생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때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司 會 : 영문속기의 趨勢는 어떻습니까? 例年에 비해서 16回의 수강생들의 관심도라든가 수강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효과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 盧英民 : 영문속기의 경우 例年과는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例年에 볼 것 같으면 배우러 오는 수강생들이 大學을 졸업했거나 대학교에서 높은 학년 주로 3, 4학년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1, 2학년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영문속기는 留學을 간다든지 移民을 가려는 분들이 관심도가 높아요.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을 예를 들면 TOEFL 시험에서 錄音器에 의한 Listening Comprehension (청취 이해력)을 '테스트'하

는데 빠른 속도로 말을 하니깐 그것을 속기로 써가지고 답을 쓰기는 쉬운 것이니까 그래서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 司 會 : 이렇게 집약이 되겠습니까. 인식도 시키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실기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고 또 의욕을 북돋아주는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協會事業으로서 속기학술보급의 사업방향설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協會 속기학술 보급사업의 방향—

○ 盧英民 : 영문속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해동안 느끼던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영문속기를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英語會話를 해야 됩니다. 아주 능숙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對話는 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하고 그 다음에 速記를 하고 그 다음에 打字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속기와 회화와 타자가 三位一體가 되어야 비로소 속기비서직 Stenographer 가 되거든요.

그래서 理想論이긴 하지만 제가 一線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속기를 가르치면서 거기다가 施設을 補完해가지고 회화도 가르칠 수가 있고 타자를 가르칠 수가 있다면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전부 충족시켜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된다면 속기강습기간을 한 두週정도라도 늘려서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金善弼 : 우리가 속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3週間이다 하는 기간을 한정시켜 놓고서 보급을 하자고 하니깐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첩회에서 하고있는 강습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專門인 속기인을 만드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강습이 3週라고 하지만 일요일을 빼면 한 18日정도밖에 날짜가 안됩니다. 또한 60分 강의해가지고 그날 배운 것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이러한 시간적 制約하에서는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 金永蕃 :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研究委員會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구위원회나 혹은 어느 개인이 강습기간이 짧다 해가지고 協會에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條件도 현재로서는不可能합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에서는 短期習得用速記術을 연구하고 있으며 既存速記法에서도 필요한 것을 修正해서 協會研究委員會式을 작성했는데 이 敎案에 의해서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를 거듭하여 보완을 해서 이것을 배운 사람이면 최소한 實用할 수 있도록 3週講習用 교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盡善盡美한 교안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修正 補完을 하게 되면 보다 훌륭한 敎案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계속 研究委員會로서는 努力을 할 것입니다.

○ 司 會 : 대개 3週로서 부족하다 하

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수강생들을 위해서는 좀더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速度를 올려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하지만 3週에 교안이 끝날 수 있다 그러면 한 1週정도는 속도를 올려 줄 수 있는 方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李康賢 : 3週동안에 연마하는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週동안 배우고 더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門을 열어 주는 것이 協會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常設講習所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에서라도 배울 수 있도록 講義錄을 發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高太仲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차라리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떠한 線을 그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3週면 3週 제한된 기간내에 그 나름으로서 速記士가 1級부터 8級까지 있으니까 8級이면 8級이라도 남이 불러주어서 정확하게 번역해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司 會 : 오늘 論議하는 것은 협회에 대해서 방향을 提示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말씀씩 해주세요.

○ 李康賢 : 문제는 수강생들이 얼마나 넓게 응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우리가 指導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기문자를 混用하여 한글에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永春 : 제가 볼때에는 期間은 더 延長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3週정도면 수강생들이 약간 아

쉬운 感을 느낄 것 같으나 수강생들이 職業速記士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日常生活에 필요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의 心理가 한달이나 4週를 한다면 지루하다고 느낄 것 같고 3週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講義를 해보면 1時間에는 그날 배당된 理論을 강의하는데에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요. 그래서 연습할만한 時間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그래서 시간을 1時間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分 연장해서 1일에 90分 講義로 해서 3週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高太仲 : 앞으로는 속기보급의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단기무료강습과 아울러 우리가 各學校라든지 필요한 機關에 나가서 실제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協會의 資格證을 따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기사로서 秘書速記를 하는 사람들은 7級이나 8級정도로 충분할 것이고, 앞으로는 취직을 할때에도 자격증이 꼭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 黃實河 : 제 私見으로는 3週를 해보아야 18일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날짜로 계산해서 21일이나 22일 강습을 하면 어떨까 해요. 아까 한시간半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研究委員長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문젯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1일이나 22일을 잡아가지고 18日間 강의하고 나머지 3, 4日 연습을 시키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李康賢 : 처음 속기강습을 시작할 때부터 3週아닙니까? 제가 日本速記 80年 史인가에서 이것을 보았는 데요. 「나카

네」式이나 「와세다」式에서 속기를 보급시켰을때 朝鮮 滿洲 日本 쪽 다니면서 1週日도 하고 3週日도 하고 긴게 3週입니다. 이렇게 보급하면서 단기강습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속기의 門外漢한테 속기가 이런 것이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것밖에 안되었습니다.

○ 司 會 : 여러가지 말씀하신 것을 集約해 보겠습니다.

協會의 속기보급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단기강습과 병행해서 직접 속기가 필요한 學校나 機關에 나가서 보급하는 것이 좋

지 않겠는가 그리고 協會에서 단기강습의 수준에 대한 목표설정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期間은 아쉽지만 3週로 하고 시간을 한시간반정도 하는 의견과 기간을 3週로 하지 말고 22日間을 해서 18日間은 敎案을 강의하고 나머지 4日間에 속도를 좀 올려주는 이러한 방향은 어떤가 하는 것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論議된 문제점과 提示된 방향이 앞으로 協會속기학술보급사업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座談會를 마치겠습니다.

速 記 料 金 案 內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20,000 원	주주총회
과 담 회	"	23,000 원	세미나 등
재 판 속 기	"	25,000 원	
방 송 속 기	"	23,000 원	
녹 음 재 생	"	25,000 원	
구 술	"	15,000 원	저술, 비서속기 등
외 국 어	"	50,000 원	영어, 일어

- 단, 1. 요지작성료는 속기로 외에 매시간당 10,000 원씩 가산함.  
 2. 진급번역료는 속기로 외에 매시간당 10,000 원씩 가산함.  
 3.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함.

위 와 같 이 결 정 시 행 함.

1975년 7월 1일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 第 5 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新綠이 날로 무성하여 生動感이 온大地에 가득차고 「아카시아」꽃향기 바람에 흩어져 初夏를 재촉하는 가운데 親善體育大會가 태능선수촌에서 盛大히 거행되었다.

이날 協會 金龍泰會長은 金綱基副會長이 代讀한 大會長人事를 통해 「오늘 이 모임이 하루에 지나지 않지만 회원각자의 體力을 증진시켜 주며 상호간의 親睦과 團結心을 높혀 준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 또한 全速記人은 거센 國家安保물결에 副應하여 각기 많은 분야에서 성실한 일꾼이 되어 줄 것과 安保隊列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한다」는 要旨의 인사말이 있었다.

다음에 大會經遇를 여러 회원에 소상히 알림으로써 全會員의 상호친목을 위하고 다음해는 더욱 發展된 大會가 될 것을 기약해 본다.

### ◎ 大會經遇 ◎

1. 日時: 1975년 5월 18일(日)
2. 場所: 태능 선수촌
3. 參席會員: 120명
4. 競技種目: 蹴球 및 陸上競技
5. 各팀紹介

황소팀: 國會速記課 速記 第1, 2擔當會員

청룡팀: 國會速記課 速記 第3, 4擔當會員

백호팀: 國會速記課 速記 第5, 6擔當

### 會員

독수리팀: 國會速記課 編輯擔當會員

사자팀: 其他會員

내빈팀

### 6. 對戰結果

#### ◇蹴球競技

優勝 황소팀 準優勝 청룡팀

#### ◇800m 繼走

1位 황소팀 2位 백호팀

3位 청룡팀

#### ◇男子 公물리기 繼走

1位 백호팀 2位 황소팀

3位 청룡팀

#### ◇女子 公물리기 繼走

1位 독수리팀 2位 백호팀

3位 청룡팀

#### ◇단물상 競技

1位 백호팀 2位 독수리팀

3位 청룡팀

### 7. 本大會를 위한 贊助

丁一權議長 金一封

金振晚副議長 金一封

金龍泰會長 金一封

維政會 金一封

權孝燮議員 金一封

鮮于宗源國會事務總長 金一封

金鍾浩國會圖書館長 金一封

崔孝燮會員 金一封

〈記念品喜捨〉

金鐸河議員 國會事務總長室

國會事務次長室 韓源祚議事副局長

李柱範商工委室長 李龍洙會員

崔秉秀會員 李相鎭會員 李宗燮會員

李永烈會員 東邦速記學院

國際劇場 東亞製藥 東英館

◎ 參觀記 ◎

○蹴球에 선전에서 황소팀對 백호팀의 對戰은 황소팀이 1:0 청룡팀對 독수리팀의 對戰은 청룡팀이 5:2로 각각 이겼으며 내빈팀對 사자팀은 내빈팀이 勝利했다.

○특히 이날 主戰選手가 젊은층인 청룡팀에 비해 老色깊은 독수리팀의 對戰은 여려차례 爆笑을 자아냈다. 독수리팀에서는 前半 20分餘에 2골을 허용한 「골키퍼」 柳智永選手에 불안을 느꼈던지 連이어 「골·키퍼」를 교체했다. 그러나 독수리팀도 「케널리·키키」를 金鍾壽選手가 성공시키는 등 敗하긴 했으나 攻擊에 예리한 면이 있었다.

○대회를 열 때마다 관심의 焦點이 되고있는 優勝「컵」의 向方이 이번에는 황소팀에 돌아갔는데 觀戰者들은 청룡팀의 猛攻과 열기면 應援에도 불구하고 황소팀의 主將 金謙善選手의 督勵 金福童選手의 善防 및

새로이 頭角을 나타낸 金京中選手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衆論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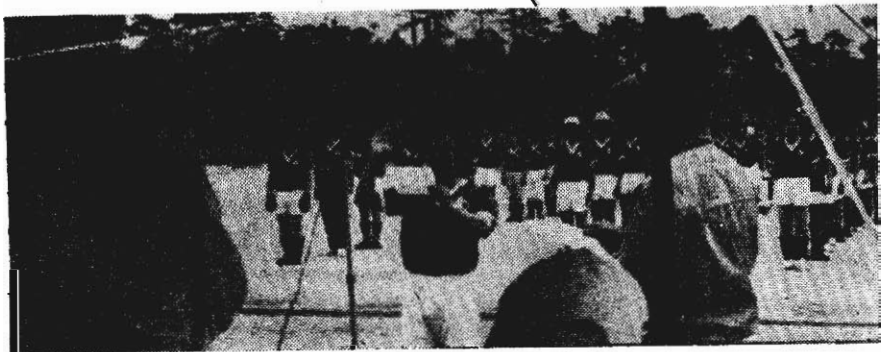
황소팀은 결승전에서 무승부를 이루고 續行된 延長戰 後半에서야 金京中選手가 강하게 찬볼이 門前에 있던 상대팀 선수에 맞아 들어감으로써 귀중한 한점을 얻어 優勝의 榮光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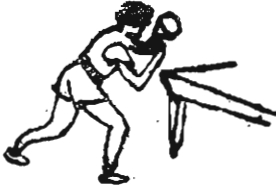
○박수갈채 속에 施賞이 끝나자 餘興은 老將 韓鍾烈會員이 한참 人氣를 모았던 가요곡 美人을 부름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서 「푸르」級의 노래수준을 자랑하는 李相鎭會員의 나그네선음과 金永春會員의 命愛 金옥선嬢은 모래城을 귀엽게 불러 「앙콜」을 요청받았고 李潤和會員의 나는 물갓네 梁源龍會員의 南道風의 타령 등이 逸品이었으며 끝으로 두 金영희會員의 종이배 합창으로써 速記人의 잔치에 幕을 장식했다.

○이른아침 滅共의 결의를 굳게 다진 安保團起大會에 이어 열린 體育大會에서는 오전중 한때 가랑비가 흩뿌리다 멎어 모두들 多幸으로 생각했고 이날 歸路의 거리에는 提燈이 數없이 매달려 부처님오신 날을 기리고 있었다.

〈宣傳部提供〉





## 優勝者의 辯

盧 熙 南

〈個人戰 優勝〉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라는 「캐치 플레이즈」를 내걸고 우리 選手네명은 나란히 서서 決戰의 그날에 대비해서 매일의 연습을 설계하곤 한다.

“너의 지금의 體重은 얼마나”는 물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연습은 대회일이 임박해 음에 따라 연습보다는 「컨디션」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되는 것이다. 처음이 아니라 몇년째 계속되는 서로들인지라 별다른 서로에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잘들 알아서 하고 있으며 「팀·웍」도 한 그 이상으로 쉽게 다져질 수 있어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試圖하고 이루어 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의 이루어 짐을 바라기에 초조해 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연습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답답한 심정 뿐이었다.

「아마추어」이기에 더욱이나 職場人이기에 실력향상보다는 정신적인 修養을 쌓는다는데에 우리들은 더욱 노력을 했었다.

점심식사후 난로가에 둘러앉아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곤한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무한한 애정과 고마움을 느낀다.

그 조그마한 하얀 공이지만 30분만 씨름하면 온몸은 추운 겨울날씨에도 땀에 흠

뻘 젖어버린다.

20代의 青年인 筆者도 지쳐버리곤 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30代이신 선배님들의 心身의 고통은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하노라면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가 숙여진다.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생활등에 대한 신경을 끊으시고 매일같이 출근하시면 곧바로 탁구장으로 와서 그 조그마한 하얀공과 싸우시는 선배님들의 誠意에 탄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士氣가 꺾일까봐 「화이팅」에 넘쳐있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나타내시는 것을 대하면 더더욱 그러했다.

어느 날인가 점심식사후 휴식시간이다. 얘기속에 매일밤 꿈속에서 그 조그마한 하얀공이 나타나 괴롭힌다고 모두가 똑같이 얘기한다.

그러자 C선수께서 꿈속에서 탁구를 하는데 덮은 이불이 들썩들썩 했다고 한다. 그러자 N선수도 나도 그랬는데 형님은 평소에 「펀치」력이 약해서 이불만 들썩거렸겠지만 나는 「펀치」가 강해서 이불이 완전히 옆으로 젖혀져 자다가 추워 잠이 깬다고 얘기하여 한바탕 웃어도 보았다. 연습이라고 해서 연습시간만의 연습이 아니라, 24시간 몽땅 그 하얀 공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니 더욱 고달픈 것이다.

딸의 痛症때문에 붙인 10여장의 「과스」는 시원함 보다는 「기부스」를 한 것 같이 부자연스럽고 눈동자는 그 조그마한 하얀공을 사로잡기 위해 튀어나온 것 같아 매뚜기의 눈망울이다. 저기애다가 금방 될 것 같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 정신적인 부담감까지 더해 비지땀만 흘리게 된다.

그렇지만 뒤에서 적극 後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마음을 달래가며 참아 나가는 것이다.

“눈이 내리면 불이 약해져요” “머리나 손톱 발톱을 깎으면 시합에 진대요” 등등 여러가지 禁忌視하는 것들도 많았다.

며칠 연습했다고 자신은 실력이 많이 향상된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시합했다가 지면은 의아해 하는 모습 또 그것이 우습게 느껴지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들이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너무도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 매일매일의 자신의 실력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향상되기를 바랐으니 말이다.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시합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부러움이 慳慳으로 변하고 등경이 疾視의 눈으로 변하다가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응졸한 마음도 여러번이었다.

어느덧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루한 마음도 試合前夜에는 오히려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는 것 같았다. 자신의 熱과 誠을 다해 닦아온 技倆을 마무리 짓고 내일의 시합을 위해 그 조그마한 하얀공을 손에 꼭

쥐고 서로를 위해 祈禱를 올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이 한결 가볍기만 하였다.

그날! 바로 결전의 그날! (1975년 2월 26일) 연습으로 다져진 기량이 정신적인 안정감의 바탕위에서 실분 발휘되어 우리는 이겼다.

「努力하는者 勝利하리라」고 우리는 運額을 한 것이다.

施賞式에서 성적 발표가 계속되는 순간 「케이」를 목에 걸고 북소리에 맞추어 올라 영고를 추고 있는 「와이키기」海邊의 하와이안」 축제기분도 「삼페인」의 爆竹속에 지칠 줄 모르며 「삼바」춤에 흥겨운 狂亂의 도시 「리오」거리의 축제분위기도 지나가버린 것 같은 적막함과 허탈감이 머리속을 매운다.

勝者로서의 영광보다는 아량울, 쫓는자 보다는 쫓기는 자의 고통이 쌓였던 피로와 긴장과 함께 허무하게 합창소리에 묻혀 버린다.

질게만 느껴지던 연습기간도 어렵게만 생각되던 優勝의 문도 통과한 이 시간! 우리는 서로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따스한 두손을 마주잡고 物心兩面으로 후원해 주신 선배동료와 응원오신 분들의 포근한 마음울 느끼며 감사의 눈길을 보낸다.

이제 그 조그마한 하얀공은 봄과 함께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속으로 까마득히 사라져 가고 우리는 또다시 日常生活의 궤도속으로 돌아온 것이다.

(國會速記課勤務)





## 農村奉仕의 보람

金 銀 珠

### < 春陽面 艾堂里 >

文明의 代辦音인 騷音과 生存競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怨聲과 絶叫가 반복되고 있는 都市를 떠나 中央線 夜間列車에 자리를 잡은 것은 75年 1月 5日 밤10時 비로소 13名의 隊員들은 뚜렷한 目的을 재삼 意識했고 未知의 奉仕대상에 대한 흥분을 억누를 수 있었다.

질게 갈린 암흑을 꿰뚫는 夜間鐵馬 안에서 冬季農村奉仕隊의 임무를 부여받고 慶尙北道 奉化郡 春陽面 艾堂里마을을 위해 일하러 간다는 一念으로 보람찬 奉仕活動이 되도록 마음에 채찍질을 가했다.

조용한 春陽의 새벽공기 속에서 艾堂行 「버스」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토록 깨끗한 마을에 分明의 혜택이 되었는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누면서 艾堂마을이 점점 가까와 오고 있었다. 그윽하게 펼쳐지는 마치 한복의 東洋畫인듯 한 小絶景사이로 高요하게 물결쳐오는 자연의 채취를 한껏 滿喫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우리는 奉仕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었다. 더구나 極貧村인 艾堂마을에……

도착한 첫날인 6日, 우리 隊員들은 이곳 유일의 艾堂國民學校에서 이 마을의 指導者 및 學校當局者들과 인사를 나누고 奉仕隊의 취지를 설명드렸다.

農村奉仕隊의 방문을 처음으로 받은 學

校側에서는 상당히 진지한 태도로 隊員들을 반겨 주었고 특히 그곳 교감 선생님의 “다같은 共同의 理想을 향해서 노력하자”는 인상적인 말씀이 우리 隊員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고 後日까지 기억에 오래 오래 남아있다.

艾堂里는 文明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奥地의 僻村으로서 脆弱地區이었다. 이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 서서히 文明의 빛전에서 발돋움하고 있지만 農事보다는 火田과 같은 밭농사를 주로 하며 감자 옥수수등에 食生活을 의존하고 있는 낙후된 마을이었다.

106世帶에 1016名의 住民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을은 험준한 太白山脈줄기에 둘러싸여 1968년에는 蔚珍, 三陟에 침투한 130名의 共匪들이 海安산을 따라 이 마을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곳 警察들과 格투 끝에 生捕實績이 21회나 되는 實戰地로서 反共意識이 투철하기로 全國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다.

특히 西碧支署에는 共匪들과 交戰한 총구멍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 말로만 敎育을 받던 反共의 山敎育場으로서 反共意識을 새롭게 해 주었고 이번 奉仕活動에서 얻은 隊員들의 커다란 수확이었다.

그러나 艾堂里는 아직까지도 電源施設과 上下水道施設이 전혀 되어 있지 않

아 생활의 불편함을 그대로 안고 自然의 遺産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 繼續事業으로서 우리의 農村奉仕隊와 艾堂里 주민사이에 有機的인 연락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우리의 활동>

奉仕活動期間中 隊員들은 활동의 범위를 대상에 따라 兒童班 中等班 青年班 長年班 婦女班 敬老班 衛生班으로 나누어 매일 좌담회를 가짐으로써 대화의 목적을 넓히고 거리감을 좁히는데 노력했다.

이번 活動期間中 가장 중점을 둔 것은 醫療奉仕이었다. 衛生班 隊員들이 家家戶戶를 방문하면서 우리의 活動을 알리고 住民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相談者의 역할도 하였다.

전형적인 無醫農村인 이 마을은 건강의 상식과 중요성, 위생관념이 全無한 실정이었다. 男女老少가 아무런 醫療의 裨益도 받지 못한채 凍傷과 胃腸病으로 고생하고 있어 事前踏査에 의한 약품준비가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隊員들이 드리는 약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후회와 애절한 외면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곳 住民들의 순진성과 소박함은 아동들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었다. 國民學校 兒童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운전사, 우체부"하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만큼 절박한 이 마을의 생활의 斷面을 나타낸 것이었다.

오전중에는 즐거운 겨울학교를 열어 兒童班과 中等班을 지도했다. 아동반은 오락중심으로, 중등반은 대화중심으로 그들의 학업에 대한 熱意를 고취시키고 자신

들의 위치를 自覺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사회가 발달되고 번천함에 따라 兒童들에게 요구되는 知識水準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의 兒童들이 教育을 받고 있는 실정은 상당히 衝擊的이었다. 물론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都市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現實이지만 모든 것을 가난의 탓으로 돌리고 父母들의 무관심과 보살핌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學年에 맞는 基礎實力도 갖추지 못한채 兒童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배움에 대한 자세를 잃어 점점 학교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은 가난이 無知를 낳고 또 無知가 가난을 낳는 이 惡循環의 自然的 產物로서 뚜렷이 示現할 대상도 없는 것이었다.

매일밤 가진 아버지 어머니들과의 座談會에서는 子女教育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호소하였다. 현실은 과거와는 달리 地域社會에 필요한 교육이 전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과 부모의 無關心으로부터 자녀들에게 自負心과 使命感 責任意識을 가지도록 先教育者로서 率先垂範하는 것이 새마을운동과도 결부됨을 力說하였다.

어머니들과의 대화에서는 食生活改善 등에 대한 基礎知識 청결에 대한 관념을 주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뜨거질에 대한 간단한 지식도 지도해 드렸다.

青年들과의 座談에서는 서로 비슷한 연령층으로서 자신들의 어려운 입장들을 부담 없이 토의하였고 앞으로 자기들의 고장을 이어나갈 指導者로서의 신념을 갖고 과거 조상들의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우리 世代의 生活風土를 개척하여 발전있는 앞날을 건설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文化公報部에서 제공해 준 文化映畫를 상영해 주었다.

떠나기 전날 오후에는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잠시나마 위로해 드리기 위한 시간을 갖고 간단한 酒宴을 베풀어드렸다. 전통적인 禮儀範節로 유명한 奉化郡에 아직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쓰신 老人들이 民謠가락을 소리하심을 들으며 과거에 대한 막연한 哀愁에 젖기도 했다.

#### 〈農村奉仕活動의 方向〉

흔히들 農村奉仕라 하면 직접 호미나 삽을 들고 일을 하는 努力奉仕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오랜동안 폭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불만과 희망을 그 속에 일구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호미나 삽을 잡아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벼와 피의 구별도 할 줄 모르고 이곳 住民들이 主食으로 하는 수수밥도 먹어보지 못한 서울에서 온 우리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奉仕活動에서는 처음으로 선정한 對象地域인 만큼 그들의 호흡속에 우리의 호흡을 조화시키면서 이 마을의 諸問題點들을 파악하고 우리들의 최대한의 능력을 설정하여 다음 夏季奉仕活動에의 기대를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農村의 住民들을 깨우쳐 주기보다는 배우는 겸허한 자세로 어떠한 民弊도 끼침이 없이 그들속에 우리를 융합시키는 방향으로 활동을 시도했다.

오랜 情性에 젖어 생활해 오던 그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活氣를 불어넣어 주고 傳統指向의인 삶에서 탈피하여 생활에 대한 自信感을 갖게 되어 미래에 대

한 긍지와 희망의 像을 심어줄 수 있는 精神啓蒙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勞働의 제공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活動期間中 奉化郡守를 비롯하여 面長 警察署長의 訪問을 받고 艾堂마을의 自立마을육성에 대한 방침과 電化事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이 마을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했다. 外部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艾堂里에 대화의 길을 열어주고 침체된 住民組織體의 방향이 活氣를 되찾고 當局의 관심이 배려된 것은 이번 活動의 成果일 수도 있었다.

#### 〈艾堂을 떠나면서〉

꽤 짜여진 매일매일의 일과속에서 隊員들은 밤 2時정도에 취침할 수 있었지만 밤하늘에 떠 있는 별우리들의 속삭임을마음속에 새기고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활동을 상의하기도 하였다.

떠나오는 날인 11日, 마을 어머니회에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떡과 과일로 일주일간의 우리들의 수고에 보답해 주시겠다고 했을때 우리 隊員들은 송구한 마음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마을住民들과 우리들은 渾然一體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副面長님이 주시는 感謝狀을 받은 隊員들은 자그마한 보람을 느꼈고 다음의 알찬 활동을 마음속깊이 다짐하였다.

머지 않은 장래에 艾堂里도 낙후된 모습에서 벗어나 大自然의 혜택을 그들의 노력으로 개발하여 所得增大를 위해 흘린 땀의 결실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배웅해 주시는 住民들에게 감사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였다.

(國會速記課勤務)

## 第8回 定期總會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1. 日時：1974年 12月 21日 午前 10時

2. 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3. 出席：在籍會員 142名中 92名出席

4. 附議案件

〈1〉1974年度 決算承認 및 監査報告

〈2〉1975年度 事業計劃案 및 豫算案承認

〈3〉任員改選

5. 會務報告

1972. 12. 30 第6回 定期總會에서 저희들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후 2年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오늘 저희들이 1974年度 1年間の 受任事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今年度에는 보다 自立과 內實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연달에 힘입어 성의껏 일했습니다마는 크게보아 現狀維持이상의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고 다갈 國庫補助없이도 현상태를 전제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자위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副應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그간의 會務全般에 亶한 報告를 드리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 執行部署 再編成

執行部署를 다음과 같이 再編成하였습니다.

總務財政部：蔡康熙 宣傳部：楊澈在 事業部：高用培 資格審査委員長：李康賢

研究委員長：高太仲 外國語部：盧英民 無任所：申世華

2. 速記講習(放學을 이용한講習)

방학기간을 통해서 學生과 一般人의 속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보급을 목적으로 國會事務處와 朝鮮日報社의 후원을 얻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期	日 字	場 所	法 式	受講人員	修了人員
겨 울	74	국회속기사양성소	연구위원회	國語 550명	316명 (57%)
	1.11~1.31	동방속기학원	동방「그레그」	英語 163명	82명 (50%)
여 름	74	국회속기사양성소	연구위원회	國語 213명	136명 (64%)
	7.29~8.17	동방속기학원	동방「그레그」	英語 84명	49명 (58%)



### 3. 法院速記講座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끝에 지난 74. 9. 25부터 法院研修院에서 3개월기간으로 속기강좌를 시작하였으나 법원행정처에서 모집조건의 不備로 수강생이 탈락되어 추후 인사규칙등 제반 법적근거를 구비하고서 다시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4.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國會事務處와 朝鮮日報社의 후원으로 매년 1회로 하던 것을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期	日 字	場 所	應試人員	合 格 人 員
6 回 (봄)	74. 4. 41	국회속기사양성소	國語 48명	國語 各級 19명
		동방속기학원	英語 13명	英語 各級 9명
7 回 (가을)	74. 10. 24	국회속기사양성소	國語 84명	國語 各級 17명
		동방속기학원	英語 15명	英語 各級 8명

### 5. 會誌發刊

會誌 速記界는 會員각위의 의견과 선배여러분의 고견을 실어 충실한 내용을 가진 명실상부한 速記界로서 年3회를 계획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1회밖에 發刊하지 못했습니다.

### 6. 速記學術研究

第6,7回 定期總會에서 회원여러분의 지적에 의해 高太仲 金善弼 金永春 趙週石 회원외에 金福童회원을 새로 研究委員으로 위촉하고 그간 연구위원회에서 연구중이던 短期講習用 速記法式이 동위원회안으로 成案되어 14회(겨울) 15회(여름) 방학강습에서 教授한바 있습니다. 두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補完하여 새로운 教案이 완성되었으며 보다 개량된 속기법식을 향하여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7. 英語速記「팀」育成

그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英語速記士를 중심으로 盧英民 外國語部長이 매주 토요일 계속적인 補修教育을 실시하여 이제는 外國에서 영어속기사를 초청하지 않아도 當協會의 영어속기「팀」이 능히 어떤 國際會議라도 기록할 수 있는 체제가 완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많은 선전과 이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8. 體育大會

74. 5. 5 회원상호간의 친선과 체위향상을 도모코자 會長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관계요리의 내빈들을 모시고 農協大學球場에서 축구등 예정된 行事를 여러분의 협조로 질서있게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합니다만 당협회의 1974年度 1년간의 會務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희망의 새해를 맞는 75年度에는 더 유능하고 協會를 위하여 힘쓰실 任員이 선출되어 본협회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실 줄 믿으며 本人과 理事여러분이 在任中 회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1974. 12. 21.

理事長 金 永 善

9. 議決된 案件

<1> 1974年度 決算

(1973. 12. 12~74. 12. 19)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기	본 수 입	150,000	130,600	회	의 비	104,000	62,820
	월 회 비	144,000	128,200		정 기 총 회	50,000	45,000
	입 회 비	6,000	2,400		회 의 비	54,000	17,820
사	업 수 입	1,244,000	1,221,400	경	상 비	54,000	18,900
	광 고 료	42,000	0		사 무 비	54,000	18,900
	회 지 대	30,000	0	수	용 비	5,000	0
	방 학 강 습 수 수 료	1,080,000	1,124,600		공 과 금	5,000	0
	기 능 검 정 료 수 수	92,000	96,800	사	업 비	1,757,000	1,224,750
찬	조 금	400,000	280,000		방 학 이 용 강 습	787,500	779,400
잡	수 입	13,247	16,076		기 능 검 정 시 험	95,000	92,710
이	월 금	442,753	442,753		속 기 경 기 대 회	100,000	0
					회 지 발 간	480,000	114,140
					속 기 학 술 연 구	152,000	96,000
					체 육 대 회	142,500	142,500
				관	공 비	150,000	120,580
				예	비 비	180,000	145,920
				이	월 금		517,859
계		2,250,000	2,090,829	계		2,250,000	2,090,829

<監査報告書>

定款 第16條의 규정에 의거 1974年 12月 19日 현재 本協會의 財政現況을 監査한 결과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74. 12. 19.

監事 柳 智 永 李 龍 洙

<2> 1975年度 豫算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기	본 수 입	150,000		회	의 비	104,000	
	월 회 비	144,000			정 기 총 회	50,000	

입 회 비	6,000	회 의 비	54,000
사 업 수 입	1,263,000	경 상 비	44,400
광 고 료	33,000	사 무 비	44,400
방학강습수수료	1,120,000	수 용 비	5,000
기능검정수수료	110,000	공 과 금	5,000
찬 조 금	400,000	사 업 비	1,863,500
잡 수 입	16,041	방학이용강습	894,5200
이 월 금	517,859	속기경기대회	100,000
		기능검정시험	95,000
		회 지 발 간	480,000
		속기학술연구	102,000
		체 육 대 회	192,300
		관 공 비	150,000
		예 비 비	180,000
계	2,346,900	계	2,346,900

### 〈3〉 改選된 任員

定款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 滿了된 任員을 다음과 같이 選出하였다.

會 長 金 龍 泰(國會議員)	副 會 長 金 鎮 基(國會速記課長)
顧問 鮮于宗源(國會事務總長)	理 事 長 崔 錫 模(國會速記事務官)
“ 權 孝 燮(國會議員)	總務·財政部長 高 太 仲
“ 李 鎬 賑(國會事務次長)	宣 傳 部 長 金 允 洙
“ 崔 興 俊(國會專門委員)	事 業 部 長 黃 寅 河
“ 劉 龍 珪(國會專門委員)	外 國 語 部 長 盧 英 民
“ 吉 基 祥(國會議事局長)	研 究 委 員 長 金 永 春
指導委員 姜 駿 遠	資 格 審 查 委 員 長 李 康 賢
“ 金 星 漢	理 事 鄭 明 吉
“ 李 東 根	“ 金 福 童
“ 張 基 泰	監 事 金 善 弼
	“ 權 昌 茂

## 74. 12. 23 第56次 理事會

1. 任員 執行部署 決定
2. 資格審查委員會委員 追加選任(柳智永)
3. 第16回 放學講習 計劃作成

## 75. 1. 6~1. 12 第16回 放學講習 受講願書 接受

1. 9 第1次(75年度)研究委員會
1. 13 第16回 放學講習 開講

講議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東邦速記學院

受講人員：國語速記 697名

英語速記 201名

## 1. 15 第57次 理事會

1. 第16回 放學講習 接受結果 報告
2. 各部署別 現況報告

## 1. 30 74年度事業實績 및 75年度事業計劃 報告(文化公報部)

2. 1 第16回 放學講習 修了  
修了人員：國語速記 423名 (61%)  
英語速記 125名 (62%)

## 2. 17 第58次 理事會

1. 文書處理內規 制定
2. 第16回放學講習에 대한 評價分析
3. 會誌發刊
4. 速記通信教育위촉 및 推薦依頼公文 接受(金星漢)

## 2. 18 第23次(75年度) 資格審查委員會

勞動廳 技能檢定委託의件 討議

## 2. 27 速記講義案內 發送(서울市內 男女高等學校)

## 3. 3 速記講師초빙 의뢰公文 接受(서울市立부녀사업관)

## 3. 6 서울市立부녀사업관 速記開講(강사 金永春)

## 3. 8 第16回 放學講習結果에 대한 座談會

## 3. 13 第59次 理事會

서울市內 高等學校 速記講義에 따른 諸般問題 討議

## 3. 20 速記講義申請 및 講師초빙에 관한 公文接受(昌德女高)

3. 22 昌德女高 速記開講(강사 金福童)
3. 24 75年度事業計劃 承認書 接受(文化公報部)
4. 4 第60次 理事會  
第8回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實施 決定
4. 11 第24次 資格審查委員會  
第8回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 計劃作成
4. 27 第8回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 實施  
應試人員：國語速記 各級 75名  
英語速記名級 9名  
試驗場所：國會速記士養成所  
東邦速記學院
5. 8 第61次 理事會  
第5回 速記人體育大會 計劃作成
- 〃 第25次 資格審查委員會  
第8回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 合格者決定
5. 18 第5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 所：泰陵選手村  
蹴球優勝：황소팀 準優勝：청룡팀  
陸 上：백호팀
- 〃 全國速記人總力安保蹶起大會  
場 所：泰陵選手村운동장
5. 19 防衛誠金 獻納(서울신문사)
6. 12 第26次 資格審查委員會
1. 新入會員加入 審查
2. 勞動廳 技能檢定試驗 위탁에 대한 對策討議
6. 13 第62次 理事會
1. 第8回 速記士技能檢定試驗 合格者發表  
國語速記：各級 13名合格  
英語速記：各級 3名合格
2. 新入會員加入承認  
홍기표(국회속기과) 김종철(〃) 조정구(〃)  
김난희(〃) 이화자(남화공업주식회사)
3. 第5回 體育大會 結果報告
4. 速記料金 引上調整

# 文書保存內規

1975. 2. 17 制定

第1條(目的) 이 內規는 社團法人 大韓 速記協會(以下協會라 稱한다)에서 처리된 各種文書의 保存方法和 節次를 정하여 處理의 正確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保存期間) 文書保存期間은 다음 3種으로 區分한다.

永久保存

5年保存

1年保存

第3條(起算) 保存期間의 起算은 處理終結한 翌年 1月 1日부터 起算한다.

第4條(保存期間 策定) 文書保存期間 策定은 別表 文書保存期間 基準表에 의한 다.

第5條(保存期間 變更) 保存期間이 定해진 文書中 情勢의 變化 또는 기타 特殊한 事情으로 인하여 所定의 保存期間을 延長 또는 短縮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의 承認을 얻어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6條(文書保存責任者) 文書保存責任者는 總務部長이 된다. 但 總務部長이 有故時에는 總務擔當 理事가 된다.

第7條(文書移管) 完結된 文書는 主務部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綴한 후 總務部에 移管하여 保管한다.

1. 文書는 每件마다 관계되는 書類를 一括하여 한件으로 合綴 整理한다.
2. 保管綴에 文書를 綴하는 順序는 完結日字에 따라 最近文書가 上部에 오

도록 編綴한다.

3. 保管綴에는 文書目錄表를 附着하는 동시에 帳數표시를 하여 索出에 容易하도록 한다.

4. 文書目錄表는 保管綴의 上部에 오도록 綴하며 帳數표시는 맨 밑帳에서부터 下部限界線 中央에 一連番號를 記入한다.

第8條(表紙의 標記) 保管綴의 表紙에는 別表 第1號書式에 의한 標記를 하여 保管한다.

第9條(引繼移管目錄) ① 保存文書의 引繼移管時에는 別紙 第2號書式의 引繼移管目錄을 2部 作成하여 1部는 受領 印을 받아 自體에서 保管하고 1部는 移管될 文書에 添附한다.

② 保存文書移管時 主務部는 別紙 第5號書式에 의한 索引目錄을 作成 備置한다.

第10條 保存年限에 따라 管理하는 모든 保管綴은 年度別 保存期間別로 整理保存한다.

第11條(記錄臺帳) 保存되는 保管綴의 記錄을 維持하기 위하여 別紙 第3號書式의 記錄臺帳에 保存期間別로 記錄을 비치한다.

第12條(點檢 및 消毒) ① 保管責任者는 保存狀態를 확인하기 위하여 年1회이상 記錄臺帳과 保存文書를 대조한다.

② 保存文書의 變질 蟲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第13條(保管綴의 貸出) 保管綴의 대출은

別紙 第4號書式의 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대출하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第14條(原本保存과 寫本의 폐기) 協會內에서 往復하는 문서는 그 문서를 기안한 主務部에서 原本을 保存하고 配付 받는 部에서는 그 처리를 완결한 후 문서이관시에 폐기한다. 다만, 主務部는 원본문서중 보관 할 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한다.

第15條(期間經過文書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기록대장에 朱書로써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內規는 1975年 3月 1日 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이 內規施行當時 總務部에 접수된 文書中 文書保存基準法에 의하여 保存期間이 끝난 文書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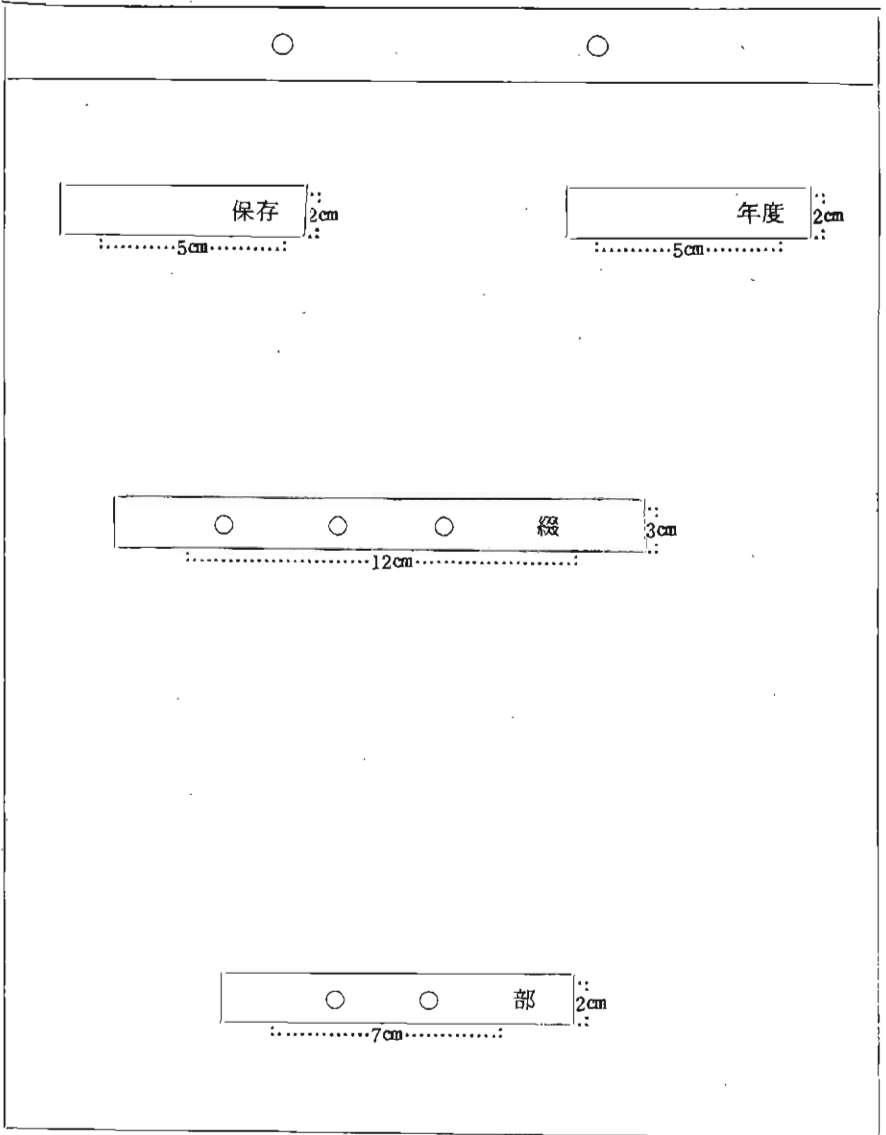
文書保存基準法

영 구 보 존	5 년 보 존	1 년 보 존
①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① 이사회 기록	① 각종시험관계문제 및 답안지
② 창립준비 및 창립총회 기록	②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서 및 수입지출 전표	② 각종업무일지
③ 총회 기록	③ 금전출납부 및 세출부	③ 협 조 건
④ 회원 및 명예회원 명부	④ 회비징수대장	④ 각종 의뢰서
⑤ 입회원서철 및 재증명 발급대장	⑤ 은행 예금통장	⑤ 계 약 서
⑥ 선입봉지서 위촉장 추대장 감사장 및 상벌관계서	⑥ 수신 발송문서철	⑥ 각종 원고
⑦ 직인 날인대장	⑦ 기능검정 및 경기대회 서류	⑦ 보도관계서류
⑧ 앨범 스크랩북 및 의원찬조 사진부		⑧ 기타 일반 잡종서류
⑨ 도서목록대장 및 도서		
⑩ 정관 및 재규정철		
⑪ 전시회 자료		
⑫ 기능검정시험합격자 명단		

<第 1, 2, 3, 4, 5 號書式 參照>

<第1號 書式>

保管綴 標記





<第2號 書式>

인계이관 목록

○○部

보존연한	편철기간	보관철명	권 수	수명자인	비 고

<第3號 書式>

기 록 대 장

주 관 부	보존연한	편철기간	보관철명	권 수	폐기 연월일	폐기 확인인	비 고

<第4號 書式>

대 출 부

연월일	대철	출영	대부	출전	대 출 자			확 인			비 고	
					소속	직책	성명	반일	납자	대일		출보관

<第5號 書式>

색 인 목 록

편찬문서명	연 월 일	수 발			내 용	비 고
		로	부	터		

## 用語解説 (8)

### 研究委員會

○多心型都市: 급격한 인구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분산시키고자 副都心을 정비하여 다수의 都心을 가지게 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켜 도시의 행정상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도 首都圈을 여러개의 도심울 가지도록 정비 개발하고 있다.

○업저버 (Observer): 觀察者 傍觀者를 뜻하는 말로서 會議에 參加하여 發言은 할 수 있으나 議決權이 없는 代表를 가리키는 호칭.

○에미상 (賞) (Emmy Award): 미국 텔레비전계의 아카데미상. 1948년부터 시작된 미국 방송계의 최대행사이며 할리우드에서 행한다. 영화의 오스카상과 마찬가지로 연간 최우수텔레비전작품 관계자에게 미국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로부터 수여되는 상. 선출방법은 아카데미 회원의 투표에 의한다.

○인스턴트 하우스 (Instant House): 卽席家屋 工場에서 만든 것을 집터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집.

組立式住宅도 이것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第3世界: 제2차대전후에 독립한 신생 저개발국들을 말한다. 정치 경제 문화등의 구조면에서 볼때 미국을 위시한 캐너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등 20여개의 선진자본주의국가 즉 서방측을 제1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중공등 10여개

공산국가 즉 동방측을 제2세계라 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 100여개의 경제적으로 뒤진 저개발지역의 여러나라를 일컬어 제3세계라고 한다.

○第3勢力: 세계 정치세력분포에서 미국과 소련을 선두로 하는 동서 양진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中立主義 입장을 취하는 정치세력을 말한다. 제2차대전후 프랑스에 있어서의 드골주의가 공산주의 중간노선을 취한 것이 그 시초로서 그후 인도 통일아랍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몇몇 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第3醫學: 치료의학 예방의학 다음에 등장한 새 의학을 뜻한다. 건설적인 것으로 신체장애자를 육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更生시켜 사회활동에 복귀시키려는 것. 즉 신체장애자의 치료에서부터 장애를 위한 職業輔導까지 行한다.

○이즈베스차 (Izvestia): 「프라우다」지와 쌍벽을 이루고있는 소련의 대표적인 관영석간지. 1917년에 창간된 소련자료회의 즉 정부의 기관지로 발행부수는 770만부라고 한다.

○WTC (world Trade Canter): 세계무역센터. 무역업자나 단체가 모여서 정보망을 조직 정보의 수집 교환과 거래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 각국의 주요도시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PPM (Parts per million): 기호는 ppm 주로 용액에 쓰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 퍼센트가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ppm은 백만분율(百萬分率)을 나타낸다. 예컨대 2ppm은 2%의 1만분의 1이 된다. 최근에는 물속의 汚物을 화학분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재는 단위도 PPM으로 나타내고있다.

○ 消息을 알립니다 ○



- [1] 第5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가 5月 18日 泰陵選手村球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2] 金鎮基副會長 海外出張  
協會 金鎮基副會長은 歐洲議會制度調查研究를 위해 지난 4月 15日 出國해서 歐洲諸國을 돌아보고 5月 14日 歸國했습니다.
- [3] 1月 4日 1975年度 始務式 및 模範公務員에 대한 表彰受與式에서 李潤和會員이 榮譽의 國會事務總長表彰을 받았습니다.
- [4]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가 친목도모와 母校發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發足되어 74. 12. 14 創立總會에서 任員陣(會長: 金致元 副會長: 趙永昌, 李賢熙 監事: 李永烈, 金成子) 이 選出되었습니다.
- [5] 지난 2月 26日 民主共和黨 創黨 第12周年記念 黨總裁令夫人「권」爭奪 친선 탁구대회에 楊澈在會員 崔況會員 盧熙南會員 金雨永氏(資編課)가 國會事務處「팀」으로 出戰하여 團體戰 및 個人戰(1位: 盧熙南會員 2位: 楊澈在會員)에서 席卷 각각 2連覇를 하였습니다.
- [6] 75. 3. 8 第16會 速記講習에 대한 評價와 分析 그리고 協會速記學術普及에 새로운 방향을 模索하기 위한 座談會가 있었습니다. (座談會 記錄參照)
- [7] 本協會에서 추진하고 있는 速記人口의 底邊擴大를 위한 一環策으로서 金永春研究委員長이 3月 6일부터 서울市立婦女事業館 事務職養成班을, 그리고 金福童會員이 3月 22일부터 昌德女高에서 1, 2學年을 대상으로 特別活動時間에 각각 速記講習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 [8] 5月 12日, 13日에 걸쳐 實施된 75年度 國會速記職公務員 採用試驗에서 6名이 合格되었습니다.  
趙正昫 柳成秀 金蘭姬 洪基杓 金鍾喆 李京植
- [9] 會員動靜
- (1) 退 職  
國會速記課에 勤務하던 權昌茂會員 金明式會員 梁順喜會員 鄭桂泳會員이 75. 6. 1 그리고 楊國鎮會員이 75. 6. 17 각각 依願免職되었습니다.
- (2) 軍 入 隊  
高錫光會員(74. 9. 14) 李世喆會員(74. 10. 8) 趙永昌會員(75. 3. 20) 柳成秀會員(75. 6. 12) 이 入隊했습니다.

(3) 復 職

軍에 服務中이던 高隆繁會員(74. 10. 4) 韓相九會員(75. 6. 13)이 除隊해서 速記課에 復職 하였습니다.

[10] 會員加入

6 月 13日 趙正胸 國會速記課勤務

” 金蘭姬 上 同

” 洪基杓 上 同

” 金鍾喆 上 同

” 李花子 남화공업주식회사

[11] 慶 吊

(1) 梁順喜會員 結婚 74. 11. 16

(2) 鄭桂泳會員 ” 75. 5. 3

(3) 金明式會員 ” 75. 5. 24

(4) 吳窩根·李英愛會員 ” 75. 6. 21

※ 그동안 國會速記課에 근무하던 女性會員들의 結婚과 특히 근래에 보기 드물게 速記士 「커들」이 탄생한데 대해 祝賀하는 바입니다.

編輯後記

○速記人들의 代辯誌로서 協會의 窓口로서 速記界가 創刊된지 滿 5年 誌齡도 15號를 헤아리게 되었다. 編輯陣은 그 나름대로 熱과 誠을 다해 精心한 協會誌를 내보려 하나 如意치않을 뿐이다. 그러나 여러 會員의 理解와 협조가 있는 한 速記界는 不死鳥처럼 生命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삶의 旅程속에 寶石과 같이 반짝이던 순간들은 流星이 밤하늘에 한줄기 빛을 뿌리듯 無限속으로 빨리 들어가고 日常의 意味없는 시간은 포개어져 倦怠를 만들어 낸다.

우리의 바램은 人生을 진하게 彩色하고 싶다는 것, 질은 향기를 發散하며 끊임없이 自存을 확인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제 盛夏 저 松林아래 백사장의 금빛 모래를 씻는 밀려오는 파도가 있으며 綠水흐르는 溪谷을 거슬러 山頂上을 오르는 意志의 行列이 있다.

그러나 이 大自然과 평화를 할키려는 붉은 魔手가 있다. 이에 이번號에는 全速記人이 總力安保의 決意를 굳게 다진 決意文을 실었고, 그리고 速記人들의 需要處를 開發하기 爲해 設問을 全會員에게 돌렸으나 거의 協助가 없었음을 아쉬워한다.

무더운 여름 會員諸位의 健勝을 빈다.

# 速 記 界

<第15號>

1975年 7月 15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金 允 洙

社團  
法人

##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Tel (72) 6140 (75) 6940·6987